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리로

예레미야 1장 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4월2일 (토) 제 186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아이다호 아리조나 초강력 낙태금지법 제정

AP, 미국은 지금 '낙태' 전쟁중... 이에 맞서는 캘리포니아주 현황 보도

아이다호와 아리조나 주가 연거푸 임신 6주,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아이다호 브래드 리를 주지사(공화)는 지난달 23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이름 붙은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아리조나 주에서도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애리조나 주의 회가 임신 15주 낙태금지법을 승인하며 미국에서 50년 동안 보장됐던 낙태권리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합류했다. 현재 미국 내 낙태금지법은 미시시피 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리조나 주에 앞서 플로리다 주는 지난 달 초 15주 낙태금지법을, 텍사스 주와 아이다호 주는 6주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기독교복음은 인종, 언어, 피부색에 상관없다!

CT, 라이오닐 영 3세 목사의 '선교현장에서 백인중심 선교관종식' 보도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끝난 후 세속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민 인권과 백인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인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역사가들은 종종 세계의 큰 사건들을 무시한 채 미국의 시민운동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종교와 세속 지도자들은 미국의 인권을 세계적인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더 큰 캠페인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다.

민족적 우월주의 태도는 서구세계에 만연해 있었으며, 백인 식민통치는 인종주의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1942년 개신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땅의 인종평등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후인 1947년 루터교 신학자 오토 프레데릭 놀데(Otto Frederick Nolde)는 세계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일련의 보고서를 제작해 교회가 선도할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 복음은 인종, 언어,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관계있다...어떤 한 인종의 본질적 우월성을 지지하는 기독교적 근거는 없다. 모든 나라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호돼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How White Rule Ended in Missions: Western missionaries championed racial equality abroad while struggling with it in their own ranks). 다음 글은 F. Lionel Young III,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전 세계 기독교센터의 연구원의 저서, World Christianity and the Unfinished Task에서 발췌한 것이다.

인종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자유를 요청하는 세계적인 운동의 일부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UDHR)을 채택했는데, 이는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투쟁의 분수령이 됐다.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세계 인권선언 표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종교의 자유와 전 세계 인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지자가 됐다. (3면으로 계속)



이런 움직임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주에서 낙태금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른 또한 미국 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AP통신은 아이다호 주가 '보수의 아상' 텍사스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전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감찰)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할아버지·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 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낙태제제를 위한 아이다호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스티븐 해리스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무고한 인간 생명이 무자비하게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한 채 6주가 지나기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로렌 네코치 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지금이 위험적이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계획협회도 "아이다호 주 여성들의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정투쟁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서 낙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이슈 중 하나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텍사스 주 낙태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속에 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낙태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낙태가 금지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 주민에게 시술을 제공하고 여비나 숙박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병원과 낙태옹호론자, 낙태찬성 주 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의 미래위원회'는 이날

주 정부에 이런 내용의 낙태 피난처 계획을 권고했다. 이 계획은 권고안이지만 그저 진보 진영의 환상은 아니라고 AP는 지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위원회를 발족했고, 주의회 의원 등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공개된 계획의 일부가 내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금도 다른 주에서 오는 낙태 희생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있다. 피난처 계획은 여기에 보태 기금같은 여행비용, 숙박, 교통, 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근 목사	3면	 푸른초장 남일현 목사	4면	 인터뷰 황선철 장로	16면
---	----	---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강령이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고난의 유익"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2022. 4. 11(월)~15(금) 새벽 5:30, 16(토) 새벽 6:00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Holy Week

 4/11(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4/12(화) 5:30am 강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4/13(수) 5:30am 강사: 이종용 목사 (토렌스 코너스톤교회 담임)	 4/14(목) 5:30am 강사: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담임)	 4/15(금) 5:30am 강사: 심상은 목사 (OC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4/16(토) 6:00am 강사: 이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담임)
---	--	--	--	---	--

주일 예배: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EM 예배: 1부: 9:20am, 2부: 11:30a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1000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그 사모님도 그러셨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생각지 못한 몇 날을 지나게 되었다. 선교지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이 막혀 오늘날 밤은 또 어디서 자야 하는지, 언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지 자신들도 모르시던 선교사님 부부와 몇 날을 같이 지내게 된 것이다. 28년 전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분이시다.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설명해주셨는데 언론에서 보고 들던 것과 느낌이 달랐던 것은 그 땅이 사역과 삶의 터전이요,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위험한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생생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몇 번의 식사를 같이하게 되었는데 그 중 어느 식사 중간에 자신도 선교사인 사모님께서 나지막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기는 몰도 제대로 못 마신다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우크라이나를 잊지 못하는 사모님이 자신에게 작게 한 말이지만 건너편에서 잘도 식사하던 내 마음이 크게 저미었다.

사모님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남기셨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당연한 일상(日常)이다. 어딜 가도 정상이다. 불편한 것이 거의 없다. 시계 틈나 바퀴 돌듯 잘 돌아가는데 익숙하다보니 다소 지루하게도 느껴지는 당연한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아니다.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자리가 일상이다. 한동안 아주 자주 부르다가 요즈음은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던 찬양을 다시 불러본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다. 일상을 잃은 사모님 말에서 일상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상은 풍성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요 놀라운 기적이다.

사모님은 떠나시면서 이런 글을 남겨 주셨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저희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아파함과 눈물로 공감(共感)해주었다고 감사하셨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공감이라. 남편에게 공감해주는 아내보다 누가 더 아름다우라. 아내에게 공감해주는 남편보다 누가 더 멋지라. 성도에게 공감해주는 목회자, 목회자에게 공감해주는 성도, 모두 행복하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지수(共感指數)는 100%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예수님의 공감은 아파함과 눈물 이상(以上)이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상황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자신을 아끼없이 주셨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b). 진정한 공감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아파함과 눈물을 넘어 그 무엇인가를 요청한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 많은 경우 그의 말과 글이 남아 있는 자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 사모님도 그러하셨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사업 위한 거대한 기회”

TGC, 미 캠퍼스사역자들이 말하는 Z세대 특성과 전도 방법론 소개(하)

Z세대의 선두 주자는 올해로 25세가 된다. 이 나이는 이 세대의 선두 집단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제 술을 마시고, 투표하고, 차를 렌트하고, 또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적다. 그들은 또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 며칠만 오프라인에서 보내도 그들은 더 이상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킁킁거리는 농담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Z세대는 이전 세대와 같은 응집력이 없다. 25세의 문화지표(cultural references)와 성장경험은 나이가 별 차이 나지 않는 19세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19세는 14세와 많이 다르다.

"Z세대는 기술의 부상과 그로 인한 새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RUF(Reformed University Fellowship) 사역자 체이스 더즈(Chase Daws)는 말한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빨리 온라인 정보로부터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무지 접근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세계를 점유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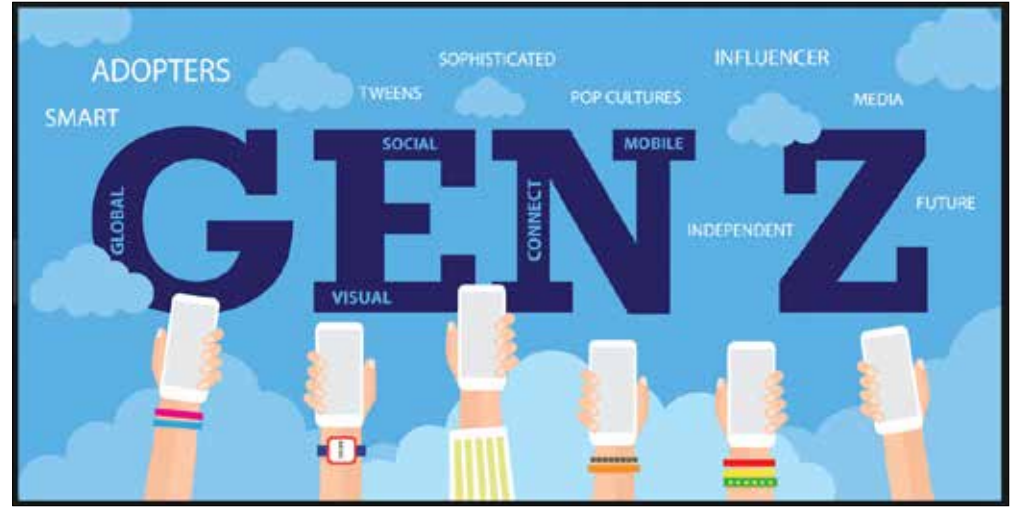
그렇다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삶의 의미나 정의 추구 같은 어려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있다.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입니다." 더즈는 말한다. Z세대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 새로운 세대의 신자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TGC는 전국의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교회지도자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동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6 Things Christians Should Know About Gen Z).

3. Z세대는 (병적일 정도로) 디지털화돼 있다

Z세대에게 오프라인 모임이 없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부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Z세대는 때때로 아이젠(iGen)이라고도 불리며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세대다.

엘리스는 말한다. "패닉이 엄청나지요. 모든 것이 다 소셜미디어에 그리고 항상 연



신에 대한 지식, 관심, 가치부여도 없지만 불의, 정체성, 삶의 의미엔 큰 관심 관계에 열망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관해선 단절돼 있어 교회가 틈새 활용해야 자신의 인식과 맞지 않는 것은 더 빨리 버려... 헌신된 핵심그룹 두는 것 중요

결돼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 세대의 의존도가 클수록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멀어지면 세대로부터 이탈된다고 느끼지요. 그들이 지금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일종의 무대와 같다는 점이다. 그 무대에서 Z세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해체와 관련된 더 깊은 문제의 징후라고 더즈는 말한다. 그는 또 말한다. "거기에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규범, 전통, 또는 기업 정체성)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상 Z세대가 가진 가장 큰 목표는 선택지의 확장인 것 같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항상 탈출구가 있는 삶입니다." 더즈의 분석이다. 뒷문이 있다는 게 해방감을 주는 것 같다. 대신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너무도 만연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을 도리어 멋있다고 여긴다. 밀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관중아"라고 말하는 건 이상해요. 그건 마치, '네

가 지금 불안하거나 화나지도 않다면 지금 넌 그림 뒤하고 있다는 소리야?"라고 말하는 거 같거든요." 밀라드의 분석이다. "젊은 이들은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전 사역자가 24시간 금식을 한다고 발표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소셜미디어 금식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밥을 안 먹는 거에 비하면 온라인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학생들도 알아요. 끊임없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예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기준을 만드는 게 온라인입니다." 최근에 텐트만의 학생 한 명이 외로움, 길을 잃음, 그리고 자격 없다고 느끼고 있음 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요청했다. 그는 거기가 바로 Z세대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있었다. 기독교가 부적절함, 불안, 우울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화"됐다고 더즈는 말한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kpc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6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6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제46회 총준위는 총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시카고 대면총회를 준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원들을 위하여 "휴식과 회복"의 총회를 준비합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22년 5월 10일(화) - 5월 13일(금) (3박4일) *주제: "교회의 기초와 권세"

2. 총회장소 Hilton Hotel(847-480-7500) 2855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3.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USD)

Table with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28), 2차(3/31), 3차(4/15). Rows include 2인1실(1인), 2인1실부부, 1인1실, 원로/공로 목사, and (부부).

4. 유의 사항

- 등록마감일에 따른 등록비는 엄격히 지켜질 것입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총회준비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반 자녀 3-18세 \$170, 18세 이상 \$305(2인1실)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의 공로 및 원로목사님의 등록비는 50% 할인입니다.
-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선교의 밤에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가정당 \$500을 지원합니다.
-총회 파송선교사는 선교보고와 기타 일정을 위해 2차 등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백신접종을 증명하셔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소를 경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은 1인당 참가비 \$200(점심 저녁 포함)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회에 일찍 오시거나 늦게 가시는 분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날수의 비용은 협상된 비용(1인1실, 2인1실 부부, \$122)으로 가능합니다.
-46회 총회총회 홈페이지(www.kapcmw.org)를 통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차 등록 마감일인 4월15일 이후에는 호텔 숙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총회 불참 시에는 호텔과 계약상 등록비를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총회 당일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하며,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저녁식사후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총무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등록안내

총회 등록비(Check 또는 Money order)와 신청서는 총준위 회계 임철성목사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MWP * 주소 : Hebron Presbyterian Church (Att: Rev. Chul S. Lim) 511 Schoenbeach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주후 2022년 3월

총회장: 오세훈 목사 준비위원장: 강인국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서기: 서정호 목사
총무: 박신용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준비위원회

아이다호 아리조나...

(1면에서 계속)
또 낙태 시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시술을 제공한 병원에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

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거의 절반인 24개가 넘는 주가 낙태를 금지할 태세다.

뉴섬 주지사는 다른 주에서 낙태하려는 환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를 지지하는 연구소 굿마커 인스티튜트는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힐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 약 130만명이 추가로 캘리포니아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독교복음은 인종...

(1면에서 계속)
서양에서는 인권과 인종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었고, 선교사들이 그 길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로 가장 잘 알려진 W.E.B. 두 보이스(Du Bois)는 세계적인 인종차별과 백인 탄압의 종식을 요구하는 예언적 목소리를 낸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다른 선교사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그러한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먼지투성이의 기록보관소에서 고생하며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세계 인권과 백인통치에 대한 변화된 태도는 복음 선포라는 주요 사역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일부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전히 동참하지 못했던 선교단체들도 이에 강제로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선교에 종사하는 서양 기독교인들은 모든 형태의 백인우월주의가 비서구 사회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비서구 사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식민지들은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

교단체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지도자에게 권위의 자리를 가능한 빠르게 준비시켰는데, 그것은 종종 서양 노동자들에게 반감지 않은 새로운 정부 정권에 의해 나라를 떠날 것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1949년의 중국과 1960년의 벨기에 콩고 사례). 선교단체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 독립된 국가에서 선교사들은 때로는 반정부 또는 인종 차별주

두 보이스는 무신론자였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UDHR)을 채택할 때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일했으며, 서양 선교사들이 세계적인 인종 차별주의를 종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했다.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사례는 1950년대 마우마우 분쟁(1952-56년경) 당시 민족주의와 반백인 정서가 고조되면서 선교지가 강제로 재배치된 것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을 휩쓴 변화는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프리카화'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켰다.

교단체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지도자에게 권위의 자리를 가능한 빠르게 준비시켰는데, 그것은 종종 서양 노동자들에게 반감지 않은 새로운 정부 정권에 의해 나라를 떠날 것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1949년의 중국과 1960년의 벨기에 콩고 사례).

그러나 인종차별주의라는 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심지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컬러바문제(사회제도적인 흑인차별 문제)'는 20세기 전반 일부 기독교 선교 단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케냐가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0년 동안(1958년경에 시작돼 1963

교단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 독립된 국가에서 선교사들은 때로는 반정부 또는 인종 차별주

박사과정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선교기관이 된 조직을 조사했다. 1950년대는 인종 통합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던 시기였다. 실무자들은 일부 선교사들의 '유색인 복음주의 신도'를 선교계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세계적인 인종차별의 종식에 힘입어 서구 통치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전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등 다양한 교파의 서양 선교사들은 교회의 권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교파에서 '선교지에서 교회로'('권리이양'이라고도 함)의 전환은 종종 낯이 서 있고 동일하지 않았다. 선교계 내 진보적 목소리가 조속한 권력이양을 촉구했다.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홀트 트리니티 교구장, 1942년부터 1963년까지 교회선교협회 총무 등을 역임한 맥스 워렌(Max Warren, 1904-1977)은 특히 탈 식민지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세계선교계를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부분은 선교사들과 선

의자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교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교회와 국가가 민간과 공공영역에 얽혀 있고, 인종적 긴장이 아파르트헤이트(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가 끝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내무부(이민국) 관계자들은 흑인 미국인 선교사들의 자녀가 백인 동료들의 자녀와 함께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로 비공개 회의에서) 큰 소리를 내며 궁급해 했다. 선교 당국은 아프리카에 '완전히 흑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선교 거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바꾸

선교지는 이른바 '미션 스테이션 정신'이 염증인 난 아프리카 교회의 충실한 주교의 요구로 1980년에 돼야 완전한 인계가 이뤄졌지만, 1970년대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적대적인 태도로 위협하고 나서야 권위를 포기했다(그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교회와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

중국어 인도에서는 이미 반서구 정서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1950년까지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압박을 받았고, 선교단체들은 교회의 지도권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반면, 20세기 중반에 교회 위계에 의해 나타난 엘리트주의에 대한 좌절감이 고조됐다.

백인에 의한 외세의 통제는 국가, 교회, 선교 단체에 상관없이 시대에 맞지 않았다. 탈식민지화가 가져온 시대적 변화에 완

백인에 의한 외세의 통제는 국가, 교회, 선교 단체에 상관없이 시대에 맞지 않았다. 탈식민지화가 가져온 시대적 변화에 완

세상을 구하는 것은 '백인들의 집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는 사명 받은 전체 교회의 책임

(9면으로 계속)



2F, 'Forget, Forgive'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실증주의 신앙"에 힘이 쏠립니다. 아무리 겉으로 튼튼하게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병든 나무이고, 겉으로 비실비실 보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건강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마 12:33). 믿음도 보입니다. 임오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순간마다의 결단 속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마 5:16)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롬12:1)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 길을 살다 가신 한분이 떠오릅니다.

'E.T.할아버지'로 알려진 채규철(1937-2006)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저기가 어디야, 아님답구먼. 나 이제 급히 감세"였습니다. 함경도 함흥에서 농촌목회를 하시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6:25 때 혼자 서울로 내려와 길거리나 천막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새우잡을 하며 서울시립농업대(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덴마크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당시 장거리 박사과 함께 일종의 의료보험인 "청십자의료조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어느 날 그는 뜻밖의 큰 자동차 사고로 온몸은 불에 타 숯덩이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끈질겼습니다. 30차례가 넘는 성형수술로 머리칼로 눈썹을 심고, 어깨 살갓을 떼어 눈꺼풀을 만들고, 입술은 가슴살로 되살렸고, 오른쪽 눈을 의안을 넣었습니다. 손은 갈고리처럼 휘어져 손가락까지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끈뭇해질 않는 의안이며 왼쪽 눈은 살에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진 고통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청십자운동'에 가담하여 1982년까지 '서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의 책임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했으며, 1970년에는 간질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미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어 1975년에는 "사랑의장기기증본부"를 창립해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모세 채규철'로 불렀고, 철없는 아이들은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따라다녔습니다. 'E.T'는 '외계인 같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타버린 사람의 준말이기도 했습니다. "농촌계몽운동"에서 비롯된 그의 교육사업은 1986년 경기도 가평에 설립한 '두밀리 자연학교'로 연결됐습니다. '어린이가 바로 세상'이라는 철학을 이곳에서 실천했습니다. 평생을 '계몽과 교육, 봉사사업'에 헌신한 성공회 신자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F'가 두개 필요해. 'Forget(잊어버려라)', 'Forgive(용서해라)' 사고 난 뒤 그 고통 잊지 않았으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았어.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걸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 받는 거야"(조선일보 관련기사 참조).

비록 외모가 흉측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기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길을 열정적으로 걸어갔기에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사셨던 큰 어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후 정와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외연이 점점 국민들까지 확장되어 양극화되어갑니다. 정권교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진보와 개혁과 보수'라는 프레임에 씌워 갈라놓는 정도가 갈수록 심하고 더욱 악화되어가는 많은 우려를 낳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특정인도, 특정 정당도 아닙니다. 단연코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단은 갈라놓는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엡4:3)" '평화의 사도, 성령의 일꾼'으로 사단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서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E.T.할아버지'로 알려진 채규철 어른이 남기신 2F, "Forget, Forgive"를 이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들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말씀 앞에서 잇을 거 잇고, 지을 거 지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의 'E.T.', '작은 예수', '걸어 다니는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인 그 한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망해드립니다.

pastor.eun@gmail.com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1-20 직접 발행

-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선스, 정비사라이선스
-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 B.A. 신학, 기독교교육
-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1-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 경영 대학(원) BA, MBA, Ph.D.
- 국방 대학원 MBA, Ph.D.
-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 (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 항공 경영학사 과정
-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 MBA - 항공 안전보안
-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달고나’ 신학

혹시 ‘달고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달고나’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정리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뽕기’라고도 불리는 ‘달고나’는 설탕을 녹인 뒤 베이킹 소다를 넣어 부풀리고 철판에 부어서 납작하게 누리고 틀을 사용하여 모양을 찍어내 만드는 설탕과자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 길에 골목 코너에서 풍겨나는 달고나의 달콤한 냄새를 뿌리치지 못하고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달고나에 찍힌 모형을 바늘로 찔러 뽑으며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빨을 씹게 만드는 길거리 불량식품으로 낙인이 찍혀 부모님이 금지했던 간식이었지만, 지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달고나 세트’상품이 아마존에서 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한 ‘달고나 신학’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희생의 신학입니다.

달고나를 만들려면 설탕을 녹이기 위해 먼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불로 가열합니다. 설탕이 녹을수록 설탕의 원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설탕이 녹아야 달고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욕심이 성령의 불로 녹여져야 합니다. 나의 옛 생활방식이 사라질 때 주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둘째는 용납의 신학입니다.

불로 가열해서 녹인 설탕에 탄산수소 나트륨인 베이킹 소다를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젓습니다. 만일 설탕이 베이킹 소다와 섞이는 것을 거절하면 설탕은 부드럽게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베이킹 소다가 이산화가스를 발생시켜서

설탕을 부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용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 호남과 영남, 한어권과 영어권,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할 때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나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져서 함께 복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셋째는 고통의 신학입니다.

설탕과 베이킹 소다가 섞인 액체를 식기 전에 철판에 부여납작하게 눌러준 후에 등그라미, 세모, 별, 우산 등의 틀로 다시 꼭 눌러줍니다. 찍힌 모양을 깨뜨리지 않고 떼어내기 위해 뽕족한 핀이나 바늘로 수없이 찌릅니다. ‘오징어게임’에서 처럼 불빛에 비추고 햇바닥으로 녹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안에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차가운 현실, 질병, 좌절과 낙담,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등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놀리고 다듬어지는 고통을 수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날카로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져서 함께 복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기쁨의 신학입니다.

달고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기쁨을 줍니다. 달달한 냄새, 친구들의 웃음, 뽕은 재미와 성공을 기억하는 기쁨을 줍니다. 또한 달고나의 우아한 변신이 기쁨을 줍니다. 달고나 라떼, 달고나 밀크티, 달고나 마카울, 달고나 아이스

팝핑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고나 특유의 달콤한 맛을 즐기는 기쁨을 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속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가정에서는 크리스천 가족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에서는 교사, 봉사자, 다락방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 예배자, 기도자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고난도 감당할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달고나 신학에 담긴 신앙생활의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푸/른/초/장

남일현 목사
(든든교회)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도 몰락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블레셋은 성경에는 그레테로 나오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으로부터 이주해서 가나안 서남부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서남부에서 동진을 하려다보니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처음부터 4천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반부터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이가봇이 되었죠. 21절에 나오는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뜻으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사라졌음을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가봇이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이가봇이 된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신자답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봇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1. 내 탓 깨닫고 회개하라

이가봇을 막으려면 첫 번째는 상황 탓과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4천명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에서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문제를 만날 때 바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패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악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는데 그러한 원리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이가봇은 막을 수도 있었겠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 한다면 그것은 평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상황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영적인 회복부터 이루어야 우리가 이가봇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무당 신앙을 버리라

이가봇을 막으려면 두 번째로 무당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자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는 승리의 묘책이라고 생각하며 승부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

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전령사로 가져 왔고 언약궤가 오자 백성들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미리 상폐인을 떠르렸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언약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상징물만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물론 언약궤를 보면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죠.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 자체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효과가 발휘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처처럼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사마니즘적 신앙이 너무나 많기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신적인 부분이 많

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누리기도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장소, 집회, 인물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마치 운동선수들의 징크스처럼 자신만의 신앙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목사를 찾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그것 보다는 자신이 전에 효과를 보던 방법부터 쟁깁니다.

그래서 전에 금식을 통해

3.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

이가봇을 막으려면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승리의 보증수표였죠. 특히 여호수아서 6장에서 언약궤를 매고 돌면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매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대기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죠.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적들이 눈앞에 있었기에 결코 할례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해결이나 소원성취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종교적 열심과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외에 무엇이 될 수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천명이 죽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결국 3만 명이 더 죽는 아픔을 당했고, 엘리 가문은 철저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명문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삼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1절처럼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어야 했던 어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가문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이가봇이 되었죠.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 아니라 죄악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이가봇과 같은 결말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 교회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적 장식물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제까지의 종교적 형식의 패턴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정도의 신앙 수준조차 없는 분들도 있고, 아직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신앙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신앙들은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종교적 형식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matthewinam@gmail.com

이가봇을 막으려면 사무엘상 4장 16-22절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은 무조건 금식부터 하고, 작정기도를 했던 사람은 무조건 다시 작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어찌나 하나님을 아니라 그런 방법 자체를 신뢰하고 붙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관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된 패턴으로만 금식을 하면 그런 금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패배를 안긴 하나의 언약궤 신앙, 즉 미신과 같은 무당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이 없으면서 붙들려고 하는 종교적 형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금식이건, 어떤 집회나 특정 인물이건, 어떤 모든 것들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자체를 의지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무당 신앙입니다. 이러한 무당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자체가 특정 목회자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부적이 되지 않도록 무당 신앙을 없애길 바랍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신앙을 무조건 육할 수는 없습니다. 4절, 실로에서 전쟁이 벌어진 장소까지는 약 40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를 언약궤를 매고 왔으니 그들의 노력을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ro-Life Coffee movement가 일어나고 있다!

커피 한잔의 영향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일 커피 몇잔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받은 너무 소중한 태아,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커피 한잔을 마시고 또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태아생명을 구할 수 있는 Pro-Life Coffee를 지지하는 운동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크리스천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펼침과 동시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사람, 온종일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나는 coffee lover들께는 더 더욱이 반가운 소식이지요.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커피는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직송되는 Java커피인데요, 자바 커피는 "생명의 존엄성운동"을 하는 Pro-Life Coffee Company로 크리스천부부가 특별 사명을 가지고 사역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커피회사이름은 Seven Weeks Coffee(7주 커피)! 설립자이자 대표: Anton Krecic 와 그의 아내 Christa

Seven Weeks Coffee(7주 커피) 회사의 특징

1. 커피회사를 세운 목적: 태아생명을 살리고 태아 엄마와 가정들을 지원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Pro-Life 생명의 존엄" 가치관을 알리고 성경적 윤리에 맞는 커피회사 운영.

2. 모든 구매 수입을 여성 보호 및 임신센터에 기부 및 각 판매액의 10%를 다양한 프로 생명 임신센터에 기부하기. 엔톤 대표는 자신 기부금이 이윤이 아닌 판매가격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고



7 Weeks Coffee-커피 한잔에 소중한 가치관들이 담겨있다. 커피 한잔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된다

객이 16.99달러 구매 중 1.69달러가 친 생명운동에 직접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엔톤 대표는 "우리는 이 비즈니스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십일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믿기에 저희 운영방침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투명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Seven Weeks Coffee는 지난 11월에 시장에 출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여성 건강 및 임신 지원센터에 3,500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3. 커피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기에 구매할 분들은 Seven Weeks Coffee라고 컴퓨터에 적으면 회사홈페이지가 나옵니다.

4. 회사의 "가치관" 중 "윤리"를 중요시 여기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윤리적으로 조달된 최고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라이프 센터(pro-life centers)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많은 대기업 커피회사들로 인해 농부에게 주어지는 낮은 임금, 추적할 수 없는 유통과정, 커피 산업의 살충제에 대해 알게 된 엔톤 대표는 윤리적으로 조달된 최고 품질의 원두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거래를 통해 커피를 공급하는 신앙기반

의 커피 로스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그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죠. 저희 회사는 "커피의 본고장인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말이죠."

엔톤 대표의 관점에서 볼 때 Seven Weeks Coffee는 "건강한 커피산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우리 커피는 "농약도 없고 커피농장도 없고 큰 상업용 농기구도 없다. 그래서 깨끗하고 내추럴한 자연 유기농이다."

Seven Weeks Coffee 이름의 의미는?

엔톤 대표는 회사이름이 만들어진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했습니다. "태아는 7주가 되면 엄마뱃속에서 원두 커피공만한 크기가 되고 이미 생명 그자체가 돼있다."

"7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지요. 심장은 3주에서 4주 사이에 뛰기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회사의 목적과 임무는 여성 임신관리센터에서 초음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도와서 여성들이 임신한 모든 심장 박동까지(태아)도 보호하는 것이다."

Seven Weeks Coffee는 또한 낙태 클리닉 대안책으로 나온 모자이크 버지니아;

이동식 임신 지원 센터를 제공하는 Vans For Life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 생명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엔톤 대표는 친생명 임신센터 (Women's Clinic)를 방문하고 더 큰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대기업을 반기독교 사회운동(공산주의 사상운동을 하는 BLM이나 WOKE 그리고 동성애 운동지 등)에게 기부하는 스타벅스와 같은 회사를 보며 친생명 여성 클리닉들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엔톤 대표는 인터뷰에서 미래의 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하니, "여러분이 7 Weeks Coffee의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의 구매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태아를 보호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커피를 통해 태아생명을 함께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을 마시고 나눌 때마다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태아생명과 엄마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7Weeks Coffee를 많이 애용하시고 선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단체는 이 커피회사와 아무 관계도 자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명을 받고 세워진 커피회사를 찾았기에 소개할 뿐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yunlee@gmail.com

Q: 목사님, 저는 성경공부 리더입니다. 어떤 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라고 부르는 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시는데요. 그것이 맞는지요? 그 분은 이미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성령님이 감동하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미 오신 그분은 다시 오시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이 문제는 성령론에 있어 오랜 세월동안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을 벌이는 "성령감동의 단회성"에 대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명쾌한 대답을 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나 안토니 후크마(Anthony Hoekma) 같은 교수는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Tarrying meeting"(성령감동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집회-소위 성령대망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퍼 교수는 단순히 수도시설의 예화를 들면서 로테르담(화란의 유명한 국제도시) 시에 옛 도시와 새 도시가 있는데 동일한 수원에서 수도관을 통해 수도시설을 하되 옛 도시에 단회적으로 수도 물을 열어 넘쳐흐르게 해야 한다고. 옛 도시에 공급된 물은 단지 유출된 것이 다(Uitvoelisel-화란어로 넘쳐흐른다는 말)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순절성령감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성탄처럼 다시 되풀

이미 오신 성령은 내 마음에 내재하시고 지금도 구하면 오심

이 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사람 위에 특히 사도들에게 임하시므로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의미에서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한번 오신 성령님은 다시 오실 수 없는 분인가? 문제의 요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 종신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차영배 박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편재성에 호소하여 "이미 성령이 계신 곳에는 다시 올수 없다"고 하는 수도관식 성령의 수평적 유출설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영배 박사는 그의 '성령론' 책에서 "이미 오신 분도 다시 오신다. 환언하면 성령은 사도들 속에도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동시에 다시 오신다. 카이퍼는 성령이 오순절에 다 부른 바 되었다(Uitsotring)고 강조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은 소낙비처럼 부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충만하다. 보좌 영이 임할 영이 계신 하늘은 비근하지 않다(계4:5). 온 교회를 날마다 충만케 하실 능력은 충분하다. 그 분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초월하시고 오신 후에도 목마를 때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 박사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 성령이 그들과 함께 내주하셨지만 그들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시 성령충만을 받았습니(행4:31).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오십니다(눅11:13). 그래서 클라스 스킨더는 오순절에 관해 설교할 때 "오, 20세기 인성들이 너희는 성령이 위에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라며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속에 계신다고 또 잠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성령님의 감동을 다시 간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피조물의 3차원의 제한적인 시각이나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장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론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내 마음에 내재하시고 또 지금도 구하면 오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찬송을 마음껏 부르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앙망하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셋새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오재민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620-2004, www.nysetsemani.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오성경강좌: 오후 02:00 수오성경부흥: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성경학원: 오전 10:00 화,토 Tel: (718)361-9198, www.mcao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75	뉴욕부르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은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오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학원: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94, www.k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오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8-08 161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오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1부예배: 오후 2시 수오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kny.org, Tel: (516)387-9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천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후 1:30 다락주일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오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 6)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오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livingstone.org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오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9:15분 주일학교 오후 1:15분 청년예배 오후 3:1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개혁교회 담임목사: 유승혜 E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9-2013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수오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6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월, 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일(월, 화, 목)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amento Ave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az,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오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온.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8: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6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오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lcal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연세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km@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ajara MEX(멕시코)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성장로교회)

교회의 핵심 가치

한국에 있는 "단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는 예배당 한쪽에 "흡연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특성 상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인식의 전환을 만든 중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을 거룩한 공간이

라는 개념에서 선교적인 개념으로 바뀌려는 좋은 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담배피기 때문에 교회 못나오겠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서서히

변화되기까지 예배에 못나올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열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문턱을 낮추니까 실제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여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예배당 공간이 거룩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생명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무엇 하지 말라, 이 전통은 꼭 지켜야 한다"는 율법적인 환경을 만들면 그 교회는 경직되기 쉽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을 때는 세상에 십자가의 능

력을 나타내 보여주던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변화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를 삶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낳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당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증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2007년에 신선하게 출판된 책이 교회를 강타했고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를 알려 주었습니다. Dan Kimball의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입니다. "예수는 좋는데 교회는 싫다"라는 책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 인도의 간디가 말했던 것과 흡사한 제목입니다. 간

디도 복음의 메시지는 좋지만 그것을 전하는 서구 제국주의 교회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식민주의 교회의 삶에서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역사는 반복되는 가 봅니다. 서구 교회와 서구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복음의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전통을 지키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는 관심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시한 교회들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Kimball이 말하기를 그렇게 편협하고 미지근한 신앙 모습을 목격한 다음 세대는 말없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서구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사이에 세계의 비서구권 교회는 매년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교회

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매일 매일 넘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구 교회들은 전통에 매달리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고 예배의 기쁨이 마음에서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증거로 드러나지 못하고 형식에 매였고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줄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다이내믹한 힘을 감안할 때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만 아니라 서서히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그 성화의 모습이 세상에 "해와 같이 빛내리"란 약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핵심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사해사본 발견 75주년...

"사해사본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북음연합(TGC)은 21일(현지시간) 올해 사해사본(사진) 발견 75주년을 맞아 리포드신학교 존 커리드(구약학) 교수의 글을 게재하고 "사해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의 신뢰성과 그의 백성을 위해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사해사본(Dead Sea Scrolls)은 1947년 이스라엘 사해 인근 쿠파란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 사본이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한다. 당초 에스더서는 제외됐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성서고고학자들의 연구로 에스더서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해사본에는 구약 성경 외에도 제2성전 시대(BC 500년~AD 70년) 비정경 문헌과 당시 종파들의 문헌도 발견됐다. 제작 시기는 BC 2세기~AD 1세기로 추정한다.

커리드 교수는 "사해사본이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진술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현존 두 번째로 오래된 성경 본문을 담고 있으며, 제2성전시대의 유대인 관습을 보여주고 신약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해사본 발견 이전까지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케테프 힌놈에서 발견된 기원전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민수기 6장의 조각 사본이었다. 완전한 형태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은 1008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하지만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제작 시기는 무려 1200년을 앞당겼다. 이는 원문에 가까운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커리드 교수는 "놀라운 것은 사해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라며 "차이점이려면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만약' '그리고' '하지만' 등의 단어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신뢰성과 그의 백성을 위해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해사본은 사해 근처 쿠파란에 위치한 예세네파라 하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파를 파악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해사본과 관련된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몇 살에 신앙생활 그만두나'

개신교나 가톨릭 등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이른바 '가나안' 신자들의 절반 이상은 18세 전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0대들을 향한 교회와 가정의 관심,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기업연구소 산하 미국인생활조사센터(The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는 최근

'2세대와 미국 신앙의 미래'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됐다.

"미국인들은 몇 살에 종교를 떠나는가"에 대해 가나안 신자 응답자들 가운데 57%는 18세 전에 종교와 관계를 끊었다고 답했다. 18~29세에 떠난 비율은 31%, 30세 넘어서 떠난 비율은 12%였다. 한국의 연령별 시기로 따지면 가나안 신자 절반 이상이 대학 입학 전인 초·중·고 시절에 종교와 단절한다는 것이다.

왜 떠날까. 조사를 총괄한 미국인생활조사센터 다니엘 콕스 소장은 부모와 가족구조를 토대로 한 '종교적 애착'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 종교를 떠난 비율은 12%였다. 반면 가족과 함께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19%였다. 또 종교 활동을 유지하는 이들은 '개인적 문제 발생시 부모에게 의지했다'는 비율이 54%였다. 종교 활동을 중단한 이들의 경우, 이 비율이 41%에 그쳤다. 이밖에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자가 종교를 떠난 비율(31%)이 보수주의자의 탈퇴율(7%)보다 약 4배 높았다.

종교를 떠난 이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콕스 소장은 "예전에는 종교를 떠난 이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 출산 등을 계기로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가곤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종교활동 중단자들이) 종교 기관과 거리를 두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종교가 예전만큼 공신력 있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인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종교 기관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종교적 가정에서 자란 비신자인 경우, 원래 비종교인보다 종교에 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신앙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콕스 소장은 "종교를 떠난 이들 가운데 69%는 '종교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문제를 더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종교를 떠난 이들(무종교인 포함)의 82%는 종교를 통한 자녀 양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도 신앙인으로서의 회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 온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간증

"기독교인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된 제5회 극동포럼에서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열하자면 "기독교인, 보수주의자, 공화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극동방송(이사장 김강환 목사)과 아일랜드드림즈(회장 권모세 장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00년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정치계에 입문했다. 6선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2013년 인디애나주지사를 거쳐 2017년 미국 제48대 부통령을 지냈다. 북유럽의 기

독교인이자 정치가로도 유명한 그의 신앙은 하원의원과 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의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동성애 커플에 대한 차별을 인정해 성소수자(LGBT)들의 반발을 초래한 '종교자유회복법안'에 서명했다. 이런 그를 두고 평론가들은 "웃소매에 신앙을 매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라는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펜스 전 부통령은 아일랜드 출신의 외할아버지를 둔 이민 가정의 출신이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 성공한 중소기업인, 가족과 교회에 헌신한 아버지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교육받았다"고 고백했다.

"신앙이 중심인 가정에서 성장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내가 믿고 있던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내 것인지, 아니면 자랄 때부터 타고난 양육의 결과인지 의문을 품게 돼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25일 강연에 앞서 김강환 극동방송 이사장, 윤석열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하노버대학 입학 후 기독교인 동아리 친구들과 교제하며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호기심으로 동아리에 처음 나갔지만, 친구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친구가 지니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가 너무 부러워서 어디서 살 수 있는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내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펜스, 이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네 마음속에 십자가를 걸어야 해.'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펜스 전 부통령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성경을 깊이 탐독하며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는 "1978년 '익투스 크리스천 찬양 축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날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했다.

'전범' 푸틴...미국, 러시아전쟁범죄 공식 결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며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무차별 공격과 기타 잔학 행위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많이 봤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건 전쟁 범죄"라며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를 문서화하고 평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 오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평가는 공개 및 정보 출처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은 아파트, 학교, 병원, 중요 기반 시설,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를 파괴했고,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군이 공격한 많은 장소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

하게 식별됐다"며 "여기에는 유엔이 지난 11일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러시아로 '어린이'라는 글씨가 명확히 보인 마리우폴 극장을 공격한 것도 전쟁범죄의 증거로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의 군대는 과거 체첸 그로즈니, 시리아 알레포에서 같은 전술로 도시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시도는 다시 한번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으로 고전하자 민간인 밀집지역이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늘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밀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명탕구리 폭탄(dumb bomb)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무부는 "지난 22일 기준 마리우폴에서만 2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관계자 발언도 전했다. 유엔은 이날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97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어린이는 81명이다. 부상자는 어린이 108명을 포함해 1594명으로 집계됐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그러나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가는 도중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만에 공식 전범 결론을 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불렀고, 러시아는 존 설리번 주러시아 미대사를 초치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다.

'급여 부스럼' 만든 바이든 즉각 발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워싱턴DC의 한 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 교체에 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전날 연설에서 "이 사람(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정권 교체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내딛진 푸틴 대통령 권력 유지 불가 발언 파문은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에 분노한 여론은 그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에는 도움이 안 되고 긴장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NBC 방송에서 "러시아가 전범이 이끄는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건 우리에게 분명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푸틴이 문명 세계에서 집권을 유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 존슨 전 국토안보장관도 "푸틴은 전범이다.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를 학살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며 "(백악관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 "러시아에서 푸틴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를 논의한 건 아니다"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정보위원장도 "유럽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건 우크라이나 정권을 바꾸려 한 푸틴"이라며 바이든 발언을 옹호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3. 변홍규(1899-1976)

변홍규(卞鴻圭)는 1899년 5월 28일에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하였다. 1913년에 공주 영명학교를 나와 임시정부의 감부식을 만나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나이가 어려 불가능하다며 공부할 것을 일러주어 1919년 중국 청도에 있던 독일계 덕화서원을 졸업했다. 이 무렵 필신이라는 호와 프리츠(Fritz Hong-Kyu Pyun)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루터교회 선교사였던 양부인 독일인 목사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햄린대학에 입학하여 성서문화학과에서 공부하고 1925년에 졸업했다. 졸업한 그해에 뉴저지주 매디슨에 있는 드루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생 신분이면서도 독일어 강의를 맡았고, 1928년에 드루신학교를 졸업하였다. 드루신학교를 졸업하던 그해에 미국 북감리교 뉴욕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드루신학교에서 신학박사과정에 들어가 구약 성서의 기록에 관한 연구로 1929년 6월에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신학세계' 제18권 1호에 기고한 '성하라'는 단지 학문적 연구를 뛰어넘어 거룩을 체험하고 노력한 신학도로서 그를 두고 '세인트 빈'이라고까지 불렀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제일한인감리교회는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부에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로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1930년 9월에 변홍규가 제일한인감리교회에 부임했다.

변홍규가 '신학세계' 제19권 4호에 게재한 '하와이생활의 추억' 중 일부분을 오늘날의 말로 옮기면서 그의 부임 여행과 함께 사역을 엿보기로 한다.

'신학교 학장을 떠나서 내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은 하와이다. 미국 상황에서 배를 타고 약 한 주간을 지나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때 나는 이상한 감상이 있었다. 바울 선생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여러 교회를 심방할 때 어떠한 감상을 가졌었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나?'하는 거룩한 말씀에 맺구가 될 만한



변홍규

말은 전도하러 여행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나 함이다. 나는 전도하러 길을 떠날 때 늘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생수같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특별히 호놀룰루에 도착할 때 더 기뻐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됨이요, 둘째는 하와이에 우리 조선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1928년 목사안수(북감리교뉴욕연회), 1929년 드루신학교 신학박사학위 취득 호향감리교회, 하얼빈교회 목회 후 귀국, 성서위원회 감신학장 담임목회 등

부두에는 호향교회에서 교우 몇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서 그네들을 내다볼 때 눈물이 자연히 나오게 되었다. 아- 여기서 우리 동포들이 30년 동안이나 맘을 흘렸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배가 닿자 하와이감리교회 감리사 프라이 박사와 호향 기독교청년회 조선총무 이태성씨가 배에 올라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배에서 내려서 환영 나온 교우들을 또한 반가이 만났다.

이태성씨의 안내로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갔다. '이 집이 내 하늘 아버지의 집이로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학창에서 일터로 나섰구나'하는 깊은 감상이 교회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성대한 환영을 해주었을 때 일어났다. 하와이는 참으로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는 겨울 추운 때가 없이 사시절준이다... 하와이는 성지와 같다...

나는 조선인 감리교회를 맡아보았다. 주일학교는 영어로 하고, 예배는 우리말로 보았다. 제2세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도 설교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나는 2년간 호향교회를 맡아보며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려 심방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송치순씨와 문포라씨 두 분은 전력을 다해서 교

회 일을 도와주며 심방을 같이 했다..." 1931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호놀룰루 민단 주회로 밀러 길에 있던 총단관 내에서 50여 명의 동포가 모여 국치기념식을 거행했다. 주석에 단장 손덕인이 맡았고, 변홍규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흥한식과 서진수와 박종수와 마주흥이 연설하고, 미감리교회 부인 찬양대가 창가를 한 후 이용직의 축사로 마쳤다.

호향 감리교회와 1918년 7월에 호향 감리교회에서 분열한 한인기독교회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931년 8월 30일 오후에 약 300명이 뗏기 공원에 모여 연합 소창회를 개최했다. 한길수의 사회로 한인기독교회 목사 이용직이 기도하였고, 호향감리교회 목사 변홍규가 간단한 말씀을 전했다. 이후 미주에 다녀온 강영각에게 인권을 주어 청년운동에 대한 열렬한 연설을 들었는데 일반 교우들은 매우 흥미있게 들었을 뿐더러 청년운동을 찬성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양 교회 교인 사이에 뜨거운 사랑과 동정이 많았다고 한다. 이 연합 소창회는 변홍규의 제안으로 성사가 된 듯이 보인다.

1932년 2월은 하와이 역사상 제일 비가 많이 왔다. 3, 4주 동안 끊임없이 폭풍우가 내린 가운데 그달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감리교 연회가 있었다. 이 연회에서 변홍규는 호향교회

람의 눈으로는 저가 인생의 성공자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가 실패자일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거짓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 하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리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 원인은 예수의 생활 원칙이 '너는 내 생을 희생하라'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너를 알라'하였고, 석가는 '내가 네 생을 부인하라'하였고, 공자는 '너는 내 생을 다스리라' 하였으나 예수는 '너는 내 생을 희생하라'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이올시다. 자기만 아는 이는 아무리 많은 학식과 기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실패자일시다.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인생 성공의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목적이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갈 때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부평초와 같이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2. 방향을 정할 것-어떤 이가 코넬대학을 등지고 문기를 코넬대학이 어디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하여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호향감리교회에서 목회한 변홍규는 성별된 사람으로 의무에 대한 헌신과 자기를 생각지 않는 성품은 놀라운 감화를 주었고,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목사로 인정을 받았다.

1932년 11월 7일 저녁에 학생 기숙소 내에서 호향감리교회와 와하와이교회가 변홍규 목사 송별연을 열었다.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인 보조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의 인격과 깊은 종교적 신앙을 찬양하였고 그에게 값있는 선물을 기증하였다.

호놀룰루를 떠난 변홍규는 북만주에 있는 하얼빈교회로 이동하여 1년간 한인들을 목회하였다.

1934년에 변홍규는 서울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고, 193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한국성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듬해 1939년에는 일제에 의해 해임당한 브리스 W. 빌링스 교장 후임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감리교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1940년 6월에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 반일 전단이 교정에서 발견되어 이른바 감리교신학교 배라사건으로 변홍규는 기속사 사감 정일형 등과 함께 구속되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3개월 영어생활 후 그는 1941년에 종교교회에 부임하였고, 1943년에는 동대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다.

1942년 12월에 감리교 통리사로 선출되어 일제의 전시체제에 반감제로 협조했다. 해방 후 1946년에 그는 감리교 신학교를 재건하여 다시 감리교 신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1948년에 남산교회에서 시무하면서 1949년에 기독교세계사를 통해 '신학원론'을 냈고, 1959년에 경천예인사가 그가 쓴 '창세기강해'를 출판하는 등 한국감리교 첫 신학박사였던 만큼 저서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을 남겼다.

WCC 창립총회 한국 대표, 한국 MRA 대표, 수도여자사범대학 이사장,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 한국기독교 문화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67년에 대한감리교회 제9대 감독에 피선되었다. 1970년에 퇴직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성서학원/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고,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주하여 한인교회 목사로 시무하다가 1976년 7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덴버 인근 패어마운트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 Tel: (323)913-4499, www.nscsusa@yahoo.com / www.lbcg.com 1720 S.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M, W, You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v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1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11:00 세 번 기도 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Figueroa St,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영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8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목 예배: 오후 7:00 세 번 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프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10:00~4:30 E.M. 매: 오전 9:45 (101호) 사역대상: 2. 교회의 영성신앙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이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단체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562)694-6214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w.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매: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본당) 수-목 예배: 오후 8:00 (본당) 세 번 기도회: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l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 "아름답게 일하게"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500-2948, dcbk.kim@cbc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말씀과 땅 (6) - 아담의 계보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어떻게 읽을까? 물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기록한 바 있다(딤후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종 역사를 함축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족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성경을 잘 읽고자 할 때 족보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중 하나가 창세기 5장에 실린 “아담의 계보”다. 이제 그 장을 잘 읽고자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1. “계보”, 즉 족보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창5:1). “계보”란 히브리어의 *tôladôt*을 옮긴 것으로서 “내력”(창2:4), “계보”(창5:1) 또는 “족보”(창6:9; 10:1; 11:10, 27; 25:12, 19; 36:1; 37:2)로 번역되었다. 저자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의 서문(

계 은혜를 입었더라”(창6:8).

3. 족보의 내러티브적 기능을 알아야 한다.

족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는 ...을 낳았고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의 경우 이런 문구는 5장에서 끝난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창5:30-31). 그러나 이 계보는 5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과 6장의 내러티브로 계속 이어진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창6:1). 여기서 보여지듯 창세기 저자가 생각하는 족보의 개념은 세대를 따라 이름을 열거하는 부분과 또 특정 세대에 벌어진 일들 또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서술하는 내용을 함께 엮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등장하는

1아담, 2셋, 3에노스, 4계난, 5마할랄렐, 6야렛, 7에녹, 8므두셀라, 9라멕, 10노아. 이렇게 열거되는 세대를 열 세대로 규정짓는 것은 창세기의 독특한 패턴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창세기 11:10-26에 기록된 “셈의 족보 (*tôladôt*)”역시 열 세대로 소개되고 있고, 이렇게 *tôladôt* 개별 단위에서 열 세대로 규정하는 족보의 패턴은 창세기 자체가 열개의 *tôladôt*으로 짜여진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패턴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도 관찰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할 때 다윗의 이름을 반영하는 수를 사용해 “열네 대”로 세 번 나눠 정리한 것과 같은 접근이다. 따라서 “아담의 계보”는 그 족보에서 대표성을 갖는 열 세대를 선별해 열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5. 족보 연수의 사본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년, 칠십인 역(LXX) - 753년. 이렇게 주요 사본들 간에 연수의 차이가 있는데, 한글성경은 마소라 사본의 777년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족보의 대표적 기능, 연수의 사본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담이 주전 4004년에 지음을 받았다 주장한 J. 아셔(James Ussher) 감독의 계산은 선별적으로 제시된 마소라 사본의 연수의 합산일 뿐 실제 역사적 연대일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6. 족보의 강조점을 감지해야 한다.

족보의 모든 세대가 “...는 ...을 낳았고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식의 획일적 패턴으로 다루어지는 않는다. 아담의 경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

대표성 갖는 열 세대를 선별해 열거... 이름들은 창세기 내러티브 구성요소중 하나 족보, 범주, 대표적 기능, 사본간 연수차이, 강조점, 비교적 의미, 방향 등 알아야

창1:1-2:3)에 이어 열 개의 *tôladôt*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했는데, 첫째는 “하늘과 땅의 내력 (*tôladôt*)”이고(창2:4-4:26) 둘째가 “아담의 계보(*tôladôt*)”다(창5:1-6:8). 이렇게 창세기를 구성하는 단락을 우리 성경에서 족보라 부르는 것이다.

2. 족보의 범주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가 *tôladôt* 구조로 씌어졌다는 것은 각 *tôladôt*의 시작과 끝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tôladôt*의 시작 및 끝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tôladôt*)”는 그 앞 “하늘과 땅의 내력(*tôladôt*)”이 끝나고(창4:26) 바로 이어 시작되며(창5:1), 그 뒤에 이어지는 “노아의 족보(*tôladôt*)”의 시작(창6:9) 바로 직전인 다음 문장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이름들은 창세기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4. 족보의 대표적 기능을 알아야 한다.

각 세대마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무수히 많았으나 창세기라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려면 기록 내용의 선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결국 구속사적 맥락에서 꼭 언급해야 하는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해 다루고 나머지 세대들은 ‘...는 ...을 낳았고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패턴을 적용해 간략히 다룬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히 다룬 세대의 목록조차도 모든 세대를 다 열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세대는 모두 열 세대에 불과하다:

라멕은 “칠백칠십칠 세”를 살았다(창5:31). 이런 연수들을 바탕으로 인류 연대표를 작성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표가 실제 역사적 연대를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족보에 열거된 세대 수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에 실제로 더 많은 세대들이 그 사이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족보에 등장하는 연수에도 사본 간에 차이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홍수라는 “대환란” 이전에 “칠백칠십칠 세”를 산 라멕 - 자칫하면 역사 연대뿐 아니라 계시록의 77과 연결지어 종말론적 상상을 펼치게 할 수 있는 숫자이다. 하지만 창세기 5:31의 사본들을 비교해보면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소라 사본(MT) - 777년, 사마리아오경(SP) - 653

년(창5:1-2)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일반 패턴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더해질 때 그 내용을 강조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에 대한 기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누가 그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첫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그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을 더하고 있어(창5:3), 하나님의 “모양”이 아담의 “모양”을 따라 셋에게 이어져감에 주목한다. 에녹이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5:22, 24)는 기록 역시 틀에서 벗어나기에 강조되는 부분이고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노아와 관련된 내용이다.

(16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영혼의 휴식

일년에 한 번 봄학기에 영성과목을 강의한다. 영성과목이 있는 학기에는 하루 낱을 정해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가까이 있는 피정센터에 가서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강의내용을 실천해 볼 시간도 되지만 바쁜 일상에 묶여서 자연에서 묵상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말리부에 있는 곳으로 주로 갔는데 코비드 때문에 2년 동안은 클래스 침묵훈련을 못 갔었다. 코비드가 많이 사그라진 덕에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학생들과 씨어라 마드레에 있는 피정센터를 방문했다. 학교에서 가는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막상 침묵시간은 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일상의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두 시간은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입장이지만 반나절 피정을 갈 때마다 나는 설레는 마음이 된다. 클래스 덕분에 나도 자연 속에서 아무 서두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 침묵훈련은 특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때에 갖게 되어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피정센터에 도착해서 간단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침묵훈련 이후에 함께 저녁식사 하러 갈 장소를 정하느라 들뜬 마음으로 설렁탕, 갈국수, 떡볶이 등을 후보에 올리며 마치 소풍은 어린 아이들 같이 즐거워했다. 두 시간 동안 각자 조용한 장소에서 침묵을 가진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나는 익숙한 장소인 분수 안 쪽, 작은 뜰에 위치한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등나무 그늘 밑에서 햇빛도 어느 정도 가려지고 불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도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다양한 새들의 길고 짧은 지저귐도 평안한 오후의 감사를 더해주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갑자기 오후의 정적을 깨고 낙엽을 부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길 아래쪽에서 정원을 돌보는 분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아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낙엽을 치우는 걸까. 정말 침묵하기 좋은 시간이었는데...” 기계 소음에 묻혀 더 이상 새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마음의 고요함도 깨져버렸다. 아쉬운 마음으로 언제나 소음이 그칠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 “야야, 네가 꼭 저 낙엽 부는 사람 같다. 먼지를 일으키며 길옆으로 낙엽을 불어 보낸다 해도 잠시 후 바람이 불면 또 다시 길가로 뒹굴어 나올 텐데 너는 내가 해결도 못할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네가 너무 분주하고 요란하게 구는 바람에 너는 내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 영혼을 잠잠하게 하렴.” 모든 짐을 혼자 진 것처럼 고민하는 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꾸짖음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산다. 사람들의 말 소리, 차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내 마음 속의 잡음 등 우리 삶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산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는 침묵의 시간을 힘들어한다. 침묵은 고독을 불러오고 고독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생활도 돌아보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해한다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아뢰, 간청, 그리고 탄원이 대부분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침묵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 방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침묵 속에 찾아오는 고독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적막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시간을 내어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시간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헛된 시간, 무익한 시간, 낭비 같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남을 위한 낭비라면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낭비해서라도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귀중한 낭비를 통해 우리 영혼에 참 휴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lpyun@apu.edu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한 번의 유혹 그리고

이민교회의 목사로서 행복과 보람이 있다면 어려운 난관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줄 때

이다. 성도들의 신분문제로 이민국과 이민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

증인으로써 동행하는 일은 보람입니다. 비록 어떤 이민관으로부터 냉소적으로 '나는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경우가 이민국에서는 큰 문제없이 영주권 인터뷰 때 목사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이민법정에 갈 때면 속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민국의 실수에 의해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지만 불법을 행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체포되었을 때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영혼이 불쌍해 결국 법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참석하게 됩니다.

한 성도로부터 이민법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

았습니다. 판사에게 성도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진술했습니다. 성도와 함께 법정에서 나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집에서 TV보며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뭐, 하나?" "할 것 없어 TV 보고 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카지노 가자? 집으로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머니에 300불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형제입니까! 첫 번에 6천불짜리 잭팟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박이 그렇듯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신이 딴 돈 6천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5천불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털이로 카지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유혹, 그 유혹을 뿌리쳤어야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 비상금까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의 유혹에 자신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어떠한 번인데..."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

면 한 번이 나를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까? 성도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하)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고전10:13하),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며 엄습해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KAPC 가미노회 제74회 봄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활발한 노회활동과 교회간 교류 기대

KAPC 가미노회 제74회 봄노회, 새노회장 고철주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 제 74회 봄노회가 3월 22일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담임 김성훈 목사)에서 열렸다. 가미노회는 BC주와 알버타주를 중심으로 미국 알래스카를 포함한 교회들이 소속돼 있다. 노회장 이진우 목사(밴쿠버 호산나한인교회)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12)라는 제목

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서 보여할 모범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신실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설교했다. 이번 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새 노회장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노회장 고철주 목사 △부 노회장 천영일 목사 △서기 김성훈 목사 △부서기 오영환 목

사 △회록서기 정영달 목사 △교회 차장호 목사 △감사 최성은 목사, 김강련 목사.

정부의 방역 지침 해제로 인해 각처에서 오기 어려웠던 노회원들이 이전과 같이 모일 수 있게 돼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과 같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각종 노회 업무들과 보고가 이뤄졌다.

모든 노회 업무를 마친 후에는 목회자들 간에 웃음으로 단합하며 마련한 선물들을 나누고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을 보냈다. 또 목회자 가족까지 참여하는 바베큐 파티를 통해 즐거운 마음들을 모으고 서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신임 노회장 고철주 목사는 "이번 노회를 기점으로 보다 자유롭고 활동적인 노회 활동과 교회들 간의 교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화목한 노회로 마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가미노회)



크리스천문협 3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독후감 시상식, 수필 강연 진행

미주크리스찬문협 3월 정기월례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회장: 송종록 목사) 3월 정기 월례회를 3월 20일 오전 11시 로텍스 호텔에서 가졌다. 제1부 예배는 송종록 회장의 사회로 송 회장이 대표기도하

고 김숙영 전도사가 특송하고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경증회장)가 설교했다.

이태환 목사는 '웃으면 보약이요(시126:2)'라는 제목의 말

씀에서 "찬송가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을 갖고 있다. 찬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께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웃으면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했다. 바라기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생활을 하면 역경이 사라지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니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자"고 말했다.

김창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독후감 시상식이 진행됐다. 독후감 수상자는 김현실, 김 목, 금은자 씨 등이다.

이어서 하정하(수필가)씨가 등단해 '수필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나의 살던 고향은' 합창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독교복음은 인종...

(3면에서 계속)

카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해방신학을 지지하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 연대를 표명했다.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삼은 이러한 형태의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영적,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신학의 수사학은 주로 반서구적이었고 해방신학자들의 비판 중 일부는 신식민주의자로 간주되는 서양 선교사들을 향한 것이었다.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양 선교사회는 주위의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어떤 형태의 '백인통치'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거부되고 있었다.

2006년 케냐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비서구권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알게 됐고, 서양 선교사들을 대하는 비서구권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내가 케냐에 있는 동안 수행한 한 연구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인들이 서양의 통제와 인종차별의 자취에 분개했을 뿐만 아니라(그리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다) 선교단체들이 문화적, 인종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아프리카인은 서양 선교사들이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 필요한 목회 준비를 꺼리는 것이 인종적 우월성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그해 나이로비 북음주의 신학대학원 교회사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우캄바니(케냐 마차코스 인근)에서 한 목사가님인 조 드 그라프트(Joe de Graft)의 문학칼럼 문투(Muntu)의 사본을 전달하기 위해 꽤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로부터 연극은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에서 공연했고 현재 아프리카 문학에서 고전으로 간주된다.

연극에서 아프리카의 아들, 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놓고 서로 싸우는 동안 워터 피플이 등장한다. 첫 번째 워터 맨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온 기독교 선교사, 두 번째 워터 맨은 물건을 팔러온 상인, 세 번째로는 땅을 찾는 정착민, 네 번째로는 금 수출을 위한 철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 식민지 행정가다.

워터 피플은 머스킷 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선교사는 뛰어난 명사수였다. 나에게 연극 대본을 건네준 아프리카 목사님은 드 그라프트의 작품이 많은 아프리카인 중에서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서양 선교사가 정착민, 무역업자, 식민지 관리인과 함께 주로 같은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좀 더 안목 있는 기독교인들은 당시 선교사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서구의 우월성을 반대하며,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는 비서구 국가에서 백인통치의 끝은 또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백인통치의 종말을 의미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서양교회와 함께 복음 속에서 동등하게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다). 서구가 아닌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선조들과 견뎌온 정복의 역사를 통렬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서양교회가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깔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그들의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려

한다. 서양교회가 그들과 함께 공통의 증인으로 섬기길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서양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서양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서구 세계의 사람들이 서양 방문객에 대한 환대를 그들에게 고통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20세기 동안 북미와 유럽인에 대한 태도가 변했고, 심지어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인종적 우위의 오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스카 무리우(Oscar Muriu) 주교는 아프리카 대륙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이자 나의 친구이기도 하다. 나는 그의 친절한 환대를 여러 번 받아왔고, 그도 우리 집에 여러 번 손님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훌륭한 식사를 곁들이며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식사에서 나는 선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그는 "서양에서 온 모든 백인...2/3 세계에서의 (선교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비서구 국가 형제들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뒤에서 선교계획을 세울 때 무시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케냐의 활동가이자 사진기자인 보니페이스 므왕기(Boniface Mwangi)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2015년 기사에 이렇게 썼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돕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백인들의 집안'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 동문회장에 김종환 목사 추대

감신미서부지역동문회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건갑 목사)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LA 한 인터아운에 있는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본래 1월에 예정됐던 신년하례회가 이날 개최됐다. 지성은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양수용 목사(회계) 기도, 윤일홍 목사 설교, 이창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윤일홍 목사는 '제자다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미국의 기독교마저 빠

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데 왜 인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후퇴하는가? 라고 진지하게 묻고 애통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 질문하며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감각과 감동, 그리고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침몰하는 기독교, 우

리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동문들은 그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타 교단에서는 감리교 목사들은 젼들하고 지성적이고 시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한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평화, 절대 기쁨이다. 그렇게 제자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면으로 계속)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역 동문회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위대한 하나님의..."

(2면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통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완전한 실패와 관련해서까지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술은 동시에 기회도 제공한다. 보스턴에서 크루는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키커트(Kickert)는 온라인에서 사역할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커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의견 중 많은 부분이 트위터를 통해 형성됩니다. 나이가 더 많고 노련한 사람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동시에 그 공간이 주는

독성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 나이든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학생들은 열성적으로 걸러내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어느 목사님을 팔로우하는데, 그가 대체로 동의하는 메시지를 작성한다면 이의를 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건 바로 걸러내는 필터로 사용된다. 그리고 팔로우를 중단하고 더 이상 듣지 않겠지요. 차라리 그런 온라인에는 발을 담그지 않는 게 나를 지도 모릅니다." 키커트의 말이다.

4. Z세대는 (열정적으로) 원칙을 따진다

Z세대는 다양성을 환영함, 다른 사람의 신념에 도전하지 않음과 같은 원칙을 매우 중요하

게 여기는 반면에 거짓말과 변하는 않는 도덕적 원칙과 같은 원칙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칙 하나는 말에 행동을 맞추는 것이다. Z세대 5명 중 4명은 이렇게 말한다. "마초적이거나 인종차별적, 또는 동성애 혐오적이라고 생각되는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고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그들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이것이다. "믿음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라."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봉사활동은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 될 수는 없다. 세상의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정말로 민감합니다."

(10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난민돕기 봄축제'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한인교회와 함께하는 '난민돕기 봄축제' 행사가 4월 30일 개최된다. 아프카니스탄 난민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행사로 △오후 2-4시: 마차 라이드, 헤이라이드, 공동체 숲 밧 동물 농장투어, 게임 △4-5시: 독일 전통의 5월 메이 댄스(May Dance) △5-7시: 만찬 및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1인당 100달러(12세 이하 50달러). 선착순 200명. 정소는 10 Hellbrook lane, Ulster Park, NY 12487.

▲문의: (845-522-0822 박성훈

Smart Brain Wise Heart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Smart Brain Wise Heart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스트레스 관리와 가정 조절 능력을 배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돕고 집중력 향상과 시험불안증 극복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돕는다. 참가대상은 7학년부 12학년까지. 학비는 160달러. 신청은 웹사이트www.familytouchusa.org로 하면 된다.

▲문의: (201)242-4422



뉴욕원로목사회 제18차 정기총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성직자회와 통합추진 결의

뉴욕원로목사회 제18차 정기총회, 회장단 유임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 제 18차 정기총회가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종원 부정령은 "16회기가 팬데믹 상황 하에서 월별 행사나 특별한 모임을 갖기 못하고 비상조직으로 조직 없이 임원회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며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조직체로서 면모를 갖추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소의섭 목사 사회로 기도 윤영근 목사, 특송 최진식 목사, 설교 김성국 목사, 감사패 증정, 봉헌기도 이수산 목사, 축사 김희복 뉴욕 교협회장 김명옥 뉴욕목사회장 변종택 21회망재단 이사장, 인사 김종원 회장, 광고 이병홍 목사, 축도 김용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아브람과 요게벳"(출6: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애굽에서 이민살이 하던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며,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여겼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며 "1세대 목회자들이 교회와 후대를 희생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않았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며 다음세대를 잘 이끌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부 총회는 김종원 사관 사회로 양희철 목사가 개회기도 하고 회원호명, 개회선언, 회순 채택, 전회의록 낭독,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회장단 및 감사선거로 이어졌다.

회계는 수입총액 15,105.43달러, 지출총액 11,191.09달러, 잔액 3,914.34달러로 보고됐다.

임원선거는 공천위원회(위원장 김용걸 신부)가 회장 김종원 사관, 부회장 소의섭 목사, 감사패 증정, 봉헌기도 이수산 목사, 축사 김희복 뉴욕 교협회장 김명옥 뉴욕목사회장 변종택 21회망재단 이사장, 인사 김종원 회장, 광고 이병홍 목사, 축도 김용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유임회장 김종원 사관은 뉴욕원로성직자회(회장 한문수 목사)와 모임(3월 23일)을 가진 것을 보고했으며 총회는 5명의 통합추진위원으로 립인환 목사, 이수산 목사, 이승의 목사와 회장단 2명을 결의했다.

이날 신안건으로 김용걸 신부가 제안한 이사회 조직은 임원회를 거쳐 내년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함께, 운동" 무료 운동교실 후원

뉴욕교협이 후원하고 뉴욕 대한체육회 주최하는 "함께, 운동" 무료 운동교실이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3월 24일에 열린 두 번째 모임은 운동에 앞서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가 기도했다.

강사 이황용 체육회 수석부회장의 인도로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기초체력을 위한 근력강화, 스트레칭을 통한 전신운동을 진행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운동 후에는 커피타임을 하며 친교시간도 갖는다.

뉴욕대한체육회는 지역사회 한인들, 장년층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운동교실이 "팬데믹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우울감 증가와 체력약화가 우려되는 요즘 지역한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열리는 무료운동 클래스"라고 소개했다.

(유원정 기자)



지난 24일 뉴욕교협 후원 무료 운동교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7년 경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길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7년 경축예배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7년 경축예배가 3월 26일 오전 11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지하 성가대실에서 열렸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는 "본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이념을 갖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남북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건국이념이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사업을 이뤄내겠다. 협력해주시며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김명옥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황동의 목사(미주총회 이사장), 성경봉독 남태현 장로(수석부회장),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방지각 목사, 축사 유규현 배재뉴욕총동창회장, 축시 조외호 목사, 광고 박진하 목사(사무총장), 축도 김용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레25:23-2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1904년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란 책을 소개하며 "이승만 박사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셨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공산당식 토지개혁을 했지만 이 박사는 소작농들에게 5년의 기간 후 자신의 땅이 되는 정책(1950년 4월)을 썼기 때문에 6.25가 닳았 때 농민들이 땅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이 박사의 토지개혁은 세계에서 토지개혁의 롤 모델이 됐다"며 "감옥에서 한국에 백만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했는데(당시 40명) 이 박사 사망 당시에 기독교인이 120만명이었다"고 소개하고 대선을 마친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박진하 사무총장은 광고시간을 통해 뉴욕지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난 2월 26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남수 목사가 미주총회장으로 재

연임되고 황동의 목사가 이사회장에, 김명옥 목사가 부총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지회는 5월에 제 17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위대한 하나님의..."

(9면에서 계속)

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빨리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키케트는 지적한다. 그들의 기준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으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그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앱을 사용하면 지지 정당, 인종, 지역 및 알코올 소비를 기준으로 잠재적으로 자신과 일치하는 항목을 얼마든지 정렬해서 만날 수 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지요. 바로 이런 사실은 그들의 사고방식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장됩니다." 키케트는 말한다.

그러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하려는 Z세대의 열망은 한편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Z세대를 아마도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텐트먼은 말한다.

교회가 대학생들을 초청해 어린이사역 봉사, 방문자 환대, 홈그룹 가입, 식사 아침식사 참석 등의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라는 게 밀라드의 충고다.

"교회가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인사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면, 즉 그런 인사는 외롭고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나 교회가 집과 가족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Z세대는 기꺼이 자원봉사 티셔츠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설립 38주년기념 임직예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라"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설립 38주년기념 임직예식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이상원 목사)가 설립 38주년을 맞아 3월 27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임직예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이상원 목사 사회로 정원석 목사(동부지방회 서기, 뉴욕한빛교회)가 기도하고, 글로리아찬양대의 찬양후 이규연 목사(동부지방회장, 주동행교회)가 설교했다.

이규연 목사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계3:7-13)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칭찬한 두 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며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순종만 있을 뿐이다.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것이며 신앙과 고난은 종이의 양면과 같다. 1)시험에 때에 함께 하겠다 2)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지키는 임직자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2부 임직식에서는 총 9명이 임직했다.

△시무장으로 박성식 △명예권사 김보옥, 이인숙 △시무권사 정미화 △안수집사 강원석, 박갑명, 박지용, 옥보훈, 전용

근 씨 등 총 9명이 임직했다.

3부 축하와 인사는 담사, 임직봉헌, 축사(황영송 목사 지형은 목사/영상), 권면사(황하균 목사), 축가 여성중앙, 인사및 광고 황규복 장로, 교단가, 축도 김석형 원로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담사에 나선 박성식 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확하고 세밀하심을 알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겠다. 뽑아주신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6:11a) 말씀처럼 헌신하며 섬기며 목사님을 보필하며 십자가 핏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송 목사(뉴욕감찰장, 뉴욕수정교회)는 "임직은 1)가문의 영광이다 2)축복이다 3)신앙고백"이라며 축사했다.

황하균 목사(전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뉴욕소망교회)는 "임직자들은 주님의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라, 교회는 직분자와 함께 일하고 순종하고 인정해 주라"고 권면했다.

임직자들은 이날 교회 주차장 보수비와 담임목사 사역후원비를 전달했으며 김신호 목사(뉴욕새소망교회)의 만찬기도 후 친교하며 선물을 나눴다.

(유원정 기자)



참가자들이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주님의식탁성교회, 영구 귀국자 후원 요청

미국 체류가 어려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한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주님의식탁성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귀국자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해 평균 2-3명의 서류미비자들이 동선교회를 통해 귀국했다.

이종선 목사는 "두어 달 전에 보낸 형제 2명도 고국의 품에서 잘 정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이번 4월 중순경에도 미국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없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딱한 세 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S씨(70대 초반) 서류미비자, L씨(60대중반) 정신이상자, H씨(60대초반) 서류미비자 등 3명은 한국행 편도 항공표 구입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이종선 목사(347-559-3030)

부활절연합예배, 4/14 컨퍼런스 연다

오렌지카운티 5개 교계단체연합 2가지 사업전개

오렌지카운티 교계단체가 연합으로 2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와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 장로), 그리고 OC 여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등 5개 단체가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와 어린이복음화를 위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3월 23일 오전 11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려 일정을 발표했다.

△부활절연합 예배는 부활절인 내달 17일 오전 5시30분 브레아에 위치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진행된다. 심상은 회장은 “2년6개월여 동안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위축됐다”며 “부활절연합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연합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고 교회가 가진 열정이 회복



OC교계단체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돼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우경 OC전도회연합회 이사장은 “예전엔 부활절 연합예배가 무척 큰 행사였다. 과거에 비해 많이 흐트러진 교회들의 유대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5월 초,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4/14 윈도우 운동 세미나도 주최한다. 4/14 윈도우 운동은 4-14세 어린이 대상 선교 운동이다. 지난 2009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첫 글로벌 서밋에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정식 선언됐다. 4-14세를 중시하게 된 것은 미국의 성인 기독교인 중

50%가 4-14세 사이에 신앙을 갖게 됐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4/14윈도우 무브먼트’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5월 2-4일 애너하임 매리엇 스위트 호텔에서 진행되며 한국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당진동일교회는 어린이 사역으로 당진의 복음화를 촉진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은 숙식을 위한 등록비 500달러 전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각 교회 목회자,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육부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계지도자 등이다. 심 회장은 “선착순 400명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니 서둘러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우크라이나돕기 운동본부주최 기자회견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연다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 1차 모금 4월말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오는 4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는 공동대표회장 송정명(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담임)를 위촉하고 준비위원장은 강순영 목사가 맡기로 했다.

송정명 목사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6.25를 통해 많은 아픔을 가진 민족이다.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기위해 이 모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5월에 예정돼있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 준비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본 송정명 목사와 한기홍 목사 등이 동역하며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를 조직하고 모금운동을 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돕기운동은 각 교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와 예배를 하도록 홍보하며 4월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게 된다.

강순영 목사는 “이미 우크라이나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현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금을 해 현지에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성금을 마련하고 어느 기관을 통해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교회와 한인들은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를 통해 모금된 금액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우크라이나돕기 운동본부는 한시적으로 조직됐다”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심부름을 하겠다는 취지로 중심이 되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모금운동은 1차로 4월말까지 전개하며 모아진 금액은 우크라이나 컬처럴센터로 보내지게 된다. 또 4월말 이후 모금 진행 상황에 따라 2차와 3차로 모금운동을 연장하게 되며 모금활동 종료시 모든 진행상황이 언론기관을 통해 공고된다.

주최 측은 모금운동과 기도회에 대한 언론사 홍보비용을 제외한 모금전액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그 외 모든 비용은 각자 지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후원 체크를 보내려면 Pay to: Holy City Movement로, 메모란에 우크라이나돕기운동이라고 쓰면 된다.

▲문의: (310)995-3936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ANC 온누리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주관하는 ANC 온누리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크리스천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신청마감은 5월 31일까지. 일반장학생, 선교사자녀 장학금 및 목회자자녀 장학금이 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은 웹사이트(www.ancsf.us)에서 하면 된다.

▲문의: ancstug@gmail.com

행복도전 30일 챌린지 행복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4월 1일부터 한 달간 ‘행복도전 30일 챌린지’를 진행한다. ‘행복도전 30일 챌린지’는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만들기 프로젝트로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활동을 매일 5분씩 30일간 참여하게 된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제니퍼 오 부소장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고 영상제작에도 참여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오픈 채팅방(https://open.kakao.com/o/gWJ7u6d)으로 입장하면 된다.

▲문의: mlee@kfamla.org



남가주사랑의교회 2022 새생명축제에서 이승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봄날의 동행’ ...강사 이승제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2022 새생명축제 열어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2 새생명축제가 ‘봄날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26일과 27일 양일간 이승제 목사(가까운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7일 오전 9시20분 쉼기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원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박용규 장로가 기도했으며 카리스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세대차이 극복하기(삿2: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승제 목사는 “다음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세대차이 극복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며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세대로 들어서야 하는 세대로 나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험은 (청년사역하면서) 말로 설득해 감동을 주며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세대는 복음을 듣기보다 보기를 원한다. 그들이 바라는 참된 복음

을 부모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생명을 알고 계속 돌이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자녀들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연합을 그대로 들고 모든 근원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야 한다. 세대 차이는 극복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노창수 목사가 합심기도와 영접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노창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감신미서부지역동문회

동문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부록사이드 골프코스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자녀 장학금 모금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고인이 된 감신동문가운데 고 윤영봉 목사와 고 김익순 목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자녀들인 잔 윤 목사(쉐퍼드 브더힐스 UMC담임)와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담임)가 동문장학금을 위해 특별헌금을 전해오기도 했다.

이어서 박사학위 논문축하 및 학위논문 발표의 시간이 있었는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구 목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인그룹(Ingroup)과 아웃그룹(Outgroup)에 관한 연구’를 간추려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종구 목사는 감신대를 졸업하고 에모리대학(M.Div)과 드류대학(STM)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다.

조건갑 회장의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김종환 목사(온마음교회 담임)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동문회 모든 순서는 김동형 원로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평강교회 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임직자 되길

평강교회 임직예배...장로 3명, 권사 4명

평강교회(담임 이상기 목사) 임직예배가 3월 27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송금관 목사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박현동 목사(서부아메리카노회 서기)가 기도했으며 이상기 목사가 ‘금 면류관을 쓴 이십사 장로들(계4:10-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상기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는 장로들이며 기다리고 계신다”며 “자기를 이기는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인내를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임직 받는 자들이 섬김과 충성으로 헌신하 하늘에서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더 든든한 만세 반석같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희 집사 특송이 있었으며, 이상기 목사 인도로 임직자 서약이, 그리고 송금관 목사 인도로 교우들 서약이 있었다. 이어 안수위원들이 장로 안수기도, 공포, 원로장로 추대패 및 임직패 증정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예배는 권대근 목사(서부아메리카노회 중경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직 받은 최기용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한 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감동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임직 받은 자 명단이다. △원로장로 이상우 △시무장로: 최기용, 임단, 김은성 △권사: 최종숙, 임다나, 김현주, 민인자.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 춘계 부흥회에서 양춘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세운교회 춘계대부흥회, 강사 양춘호 목사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춘계대부흥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양춘호 목사(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렸다.

박성규 목사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25일 저녁집회는 손흥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

어 양춘호 목사가 ‘구원의 능력(눅5: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춘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며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을 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된

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의 완성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며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들은 첫째, 섬기는 자세를 갖고 사는 자들이다. 둘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다. 셋째,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헌신한 자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랑, 능력, 용서, 임재 등 모든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 교회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집회는 양춘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불방학 특별강의가 열리고 있다

릴리 2차-미디어 및 IT 관련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불방학 특별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릴리 2차-미디어 및 IT 불방학 특별강의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위해 카메라 설치부터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했다.

강사로는 구자혁 교수, 릴리 프로젝트 김남진 디렉터가 참여했다. 구자혁 교수는 “교회사역에서 멀티미디어가 필요한 시대다. 이 부분에 대해 신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YouTube Live △YouTube Streaming Key △Camera Controller △IP Network Setting △LAN Cable Prepare△Worship Media Preparation △MS PPT Presentation △ProPresenter △Blue Screen and Presentation △Zoom Conference Connect △Facebook Live Connect △ATEM Multi-view and Program View △ATEM Chroma Key Functions △ATEM Advanced Functions 등이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선교의 창 (19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세상 향한 교회의 책임

우크라이나에 포성은 언제 나 멈출 것인가?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달포가 넘었다. 뉴욕 타임스(3월16일자)는 전쟁 개시 이후 3주간 동안 러시아 군인 사망자만 7000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공격 측이 이 정도라면 방어 측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인적, 물질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 3,557,245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했다. 이는 그 나라 4천300만 국민 중 8%에 해당된다.

신앙과 양심은 이렇게 후대에 까지 울림을 준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불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성의(聖衣)를 입고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인가? 참된 기도는 행동

송했다. 이 언약은 총 15개항이다. 제5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을 언급하고 있다. 그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

들은 교과를 떠나 나치에 대해 지지하거나 침묵을 하였다. 당시 독일교회는 상당히 교권주의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교역자는 마치 공무원과 같았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복음의 생명력은 없었다. 그러던 중 히틀러가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줄 테니 나치를 지지해주고, 나치가 하는 정책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따라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개신교나 가톨릭은 두말없이 순응하였다. 엄혹한 시절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독일교회는 애국주의 광풍, 반유대주의 광풍에 똑같이 휩쓸렸다. 하지만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the Confessing Church)는 신앙양심 상 동조할 수 없었다. 저들은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 침묵한다면 하늘의 뜻을 누가 펼칠 것인가? 4. 불의한 전쟁 앞에 교회가 해야 할 일 “마차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희생자에게 봉대를 감아주려고만 하지 말고, 마차의 바퀴에 뿔 끼워서라도 굴러가는 마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나치 하에서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인들의 생각이었다. 지금 세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다. 시리아 내전, 예멘 위기, 아프가니스탄 갈등 등이다. 고집 세고 냉혈적인 군왕들은 인명을 우습게 여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변의 나

라들도 자기 안위만을 우선시하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몸을 사리고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4:6).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교회가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철저히 비폭력이어야 한다. 물리적 대항은 더 큰 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만일 세계의 1만여 성직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우크라이나로 가 광장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3일만 금식 기도한다면 하늘이 진동하지 않을까? 18억 무슬림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천주교, 동방정교, 기독교도를 합치면 24억이다. 전 성도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를 향해 하루에 한 번씩만 정한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뭔가 사인이 보이지 않을까?

교회는 구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아픔을 외면한 교회는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다. 크리스천은 세상 향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란 말인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진대 새벽이슬 같은 청춘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가? 불이 난 곳에는 탁상공론이 필요 없다. 우선 시급한 것은 더 이상 살상이 없도록 불부터 끄는 것이다. 너의 집, 나의 집을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 독일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이 추모하는 본회퍼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외쳤다. 그는 용감했다. 거대한 여둠의 세력 앞에 불꽃처럼 자기 몸을 던져 산화했다. 행동하는

수반한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무장투쟁은 배격하되 선한 방법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멈추도록!

1. 로잔언약에 언급된 교회의 사회적 참여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1974년 7월 16-25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채택된 내용이다. 당시 의장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였으며 150여 개 국가에서 3,7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문건은 존 스톱트(John Stott) 목사가 기초했다. 당시 세계의 각 언론들은 “20세기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천 선언 가운데 하나”라고 칭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 나치(Nazi)하에서 침묵했던 교회들

나치 하에서 독일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대다수의 교회

도 굴복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바로 바르텐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죽거나 투옥되고 자격을 상실 당했다. 본회퍼 역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뷔르크 수용소(Flossenbürg concentration camp)에서 알몸으로 발거벗겨진 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나이 40세였으며 히틀러가 죽기 1주일 전이었다.

3.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러시아 교회들

우크라이나는 현재 65%가 동방정교, 15%가 가톨릭, 3%가 개신교(http://churchtheway.com/home)로서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비율이 83%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기독교 74%(동방정교회 73.62%, 기독교 0.33%, https://www.glocaldn.

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 침묵한다면 하늘의 뜻을 누가 펼칠 것인가?

4. 불의한 전쟁 앞에 교회가 해야 할 일

“마차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희생자에게 봉대를 감아주려고만 하지 말고, 마차의 바퀴에 뿔 끼워서라도 굴러가는 마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나치 하에서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인들의 생각이었다. 지금 세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다. 시리아 내전, 예멘 위기, 아프가니스탄 갈등 등이다. 고집 세고 냉혈적인 군왕들은 인명을 우습게 여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변의 나

맺음 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불의가 판을 친다. 하늘의 평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다. 세상 향한 교회의 책임은 준엄하다. 그것은 선지자적 음성을 선포하며 먼저 침묵한다면 하늘의 뜻을 누가 펼칠 것인가? 4. 불의한 전쟁 앞에 교회가 해야 할 일 “마차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희생자에게 봉대를 감아주려고만 하지 말고, 마차의 바퀴에 뿔 끼워서라도 굴러가는 마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나치 하에서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인들의 생각이었다. 지금 세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다. 시리아 내전, 예멘 위기, 아프가니스탄 갈등 등이다. 고집 세고 냉혈적인 군왕들은 인명을 우습게 여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변의 나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5) 밀레도를 소개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이어서 헬라를 방문하고 아시아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트로아(Troas)에 잠시 머물며 주간의 첫날(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과 설교를 합니다.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헤어졌던 일행들을 만나 일행들과 함께 미틸레네(Mitylene), 기오(Chios) 그리고 사모(Samo)를 지나 밀레도(Miletus)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점입니다.

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와 밀레도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밀레도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바울이 밀레도에 둔 병든 트로비모(Trophimus)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사도행전

Pesch)는 이 설교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해 장로들이 세워졌고, 둘째로 목회서신이 전제하는 것처럼 거짓교사 출현을 언급하고, 셋째 이 설교와 목회서신에서는 복음과 바울

31, 축복(32-35)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구조 분석을 하는 근거는 22절, 25절, 32절에 지금(Now)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교회와 양떼를 돌보라고 권면합

졌고 밀레도는 크게 변했습니다.

밀레도는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고대 헬라 역사 지리학자 헤카타이오스(Hekataios)가 밀레도 출신입니다. 또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진 탈레스(Thales)가 밀레도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 7대 현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그가 창시한 밀레도 학파 때문에 유명합니다. 밀레도 학파는 그리스 최초의 철학 학파입니다.

밀레도 학파는 탈레스 이후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가 이끌어갔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보다 백

는 네 개의 항구를 가진 해양 도시였습니다. 태풍과 외침을 막아주는 지형 조건은 평화를 누리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노리는 적들이 많아 많은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과 멸망 그리고 재건이 반복되었는데, 재건될 때마다 번창했습니다. 성서지리학자 마크 윌슨은 자신의 책(Biblical Turkey)에서 밀레도가 BC 6세기경에 가장 번성한 헬라 도시(most prosperous Greek city)라고 말합니다.

밀레도는 농업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곡물, 포도, 그리고 올리브의 생산으로 밀레도는 큰 부를 누렸습니다. 아울러 밀레도에는 시장들이 발달했습니다. 미첼 레디쉬(Mitchell S. Reddish)는 “밀레도에 세 개의 시장(Agora)이 있었고, 그 중 남부시장은 고대 헬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밀레도에는 대형극장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5천3백명 정도를 수용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1만5천명으로 확장되었고, 로마 말기에는 2만5천명으로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 극장의 의자들에 새겨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섯 째줄, 서쪽에서 두 번째 줄 의자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좌석”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데이빗 그레이브는 자신의 책 “성서고고학(Biblical Archaeology)”에서 ‘이는 유대인 지정석을 의미하고, 이는 밀레도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거주한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chap1207@hotmail.com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점...교회론과 목회론 풀어 설교 BC 6세기 가장 번성한 학문의 도시, 대형극장엔 유대인 좌석도

밀레도(Miletus)는 소아시아(Asia Minor) 서쪽의 출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으며 라트미안 만의 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밀레도는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과 바다에서 밀려온 침전물이 쌓여서 큰 배의 출입이 어려워졌고, 지금은 항구가 폐허해안에서 7-8km 떨어진 내륙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밀레도는 성경에 꼭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예

의 다른 설교들과는 차별성이 부각되는 설교입니다. 특히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성도들(장로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바울의 서신서 교훈과 설교 내용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디벨리우스는 바울의 창작성을 강조하면서 서신서의 가르침과 바울의 밀레도 설교의 가르침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루돌프 페슈(Rudolf

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예르벨(Jacob Jervell)은 바울의 이 설교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 전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전한 설교에서 교회론과 목회론을 풀어 설명합니다. 설교에는 회상(행20:18-21), 전망(22-24), 자기변명(25-27), 경고(28-

년 이상 앞선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당시 성행했던 헬라 신화적 관점이 아닌 새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만물의 근원을 자연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학파를 자연철학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밀레도 학파를 자연철학자로 부릅니다. 좁은 반도에 위치한 밀레도

년 이상 앞선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당시 성행했던 헬라 신화적 관점이 아닌 새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만물의 근원을 자연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학파를 자연철학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밀레도 학파를 자연철학자로 부릅니다. 좁은 반도에 위치한 밀레도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성령의 조명(눅24:32)찬506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생활에 능력의 근 거입니다. 능력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 한 것임을 믿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기록 된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 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내릴 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그 현장을 보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뜨 게 해 성경을 깨닫게 하심(아해시킵)으로 그의 죽 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눅 24:32). 부활의 강력을 소유한 우리는 (엡1:19) 어 디서나 성령의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화 임하신 말씀(눅3:1-14)찬206장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구원 의 역사는 준비됐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 납니까? 첫째, 말씀이 임해야 나타납니다. 성경이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가 읽 고 듣고 묵상할 때 찾아주시는 말씀이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빈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2). 들

째, 고정관념을 경계해야 합니다(8). 과거의 경력, 현재의 호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 로 주님을 섬겨야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 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빛 아래 설 때 자아의 교 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드 러나는 우리시대를 바로 살기위해 그리스도 안에 서 말씀을 잘 받음으로 영적분별력을 가져야 합 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수 임하신 그 나라(눅5:27-39)찬270장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마태의 집 잔치에 초대되신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주님 이 배푸신 4가지 비유(의사, 금식, 새옷, 새포도 주)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신은 그 나라 왕되심을 주장하시며 새 시대에 응해야한 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는 속세 를 떠난 곳에 있지 않고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장

소에 임했습니다. 그 왕은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친히 일하셨습니다(30-31). 어떤 형편이라도 그 리스도를 모시기만하면 그 나라의 은혜는 임합 니다. 셋째, 새 시대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시대의 자유를 벗고 복음시대의 진리 속에서 온전해지고 자유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8-39). 이 세상에 혼란 속에서도 그 나라 백성 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목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눅16:1-15)찬319장

본문은 신자의 일상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 니까? 첫째, 충성해야합니다. 39절에 복있는 자 는 주인을 항상 기다려 깨어 섬기는 종이라고 합 니다. 우리는 상급을 구하는 종으로 살아야합니 다. 둘째, 신실한 청지기야 살아야 합니다. 청 지기(steward)는 소유권이 없고 오직 주인의 뜻 을 따라 일하는 매니저에 불과합니다. 시간, 물 질, 건강 등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기위해 향

상 주인에게 보고할 일을 생각하는 종말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긴장이 죄를 이기게 하며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기게 합니다. 셋째, 오 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기 영 광으로 떨어지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야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균 형이 잡힙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만 영 광을 돌립니다.

금 천국의 기쁨(눅15:1-10)찬204장

본문에서 보인 천국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바리새인들(1-2)과 달리 천국의 기쁨을 즐기는 자가 돼야합니다(9).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즐겼으나 경건의 내용인 복음의 맛과 전통의 중 심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잃은 한 드라 크마를 찾은 것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잃어버린 양인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찾은바 돼 천국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둘째, 주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에 서 맞지 말고 잃은 자를 찾아나서는 전도의 즐거 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주님 의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드려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합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거 기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토 기도의 집(눅19:45-20:8)찬344장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께서 보이신 소중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은 예전과 같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 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가리킵니 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 처럼 교회는 기도집이어야 합니다. 떡집에 떡냄 새, 음식집에 음식냄새가 나듯이 기도집에는 기

도의 향내가 남아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 야합니다(고전3:16). 둘째, 그렇지 못하면 강도 의 굴혈이 되기 쉽습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외식의 죄만 키우는 바리새인의 죄악 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혼란이 많은 세상에 있는 성전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의 향 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1)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겟세마네의 기도

지난 1936년 영국의 민족 작곡가 본 윌리엄스 (Ralph Vaughn Williams, 1872-1958)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율이 감동자 전쟁은 안 된다고 외 치며 전쟁의 참상을 음악으로 그려낸 것이 칸타 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라는 곡입니다. 1차 대전 당시 참전 군 인으로서 전쟁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꼈던 본 윌 리엄스는 이 곡을 통해 그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 히 드러내며 평화를 간절히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았습니다. 하지만 1937년 끝내 전쟁은 발 발되었고 그것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음악으로 표현하고자했 던 평화를 오늘날 우리는 참담하고 아픈 비극 속 에서 한 번 더 외치고 있습니다.

토벤(L. V. Beethoven, 1770-1827)의 첫 번째 오라토 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Christus am Olberge-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Op.85)"일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윈스턴 처칠(Sir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 전 영국총리입니다. 그가 독일 공군의 폭 격으로 수도 런던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데도 영 국 국민들을 독려하며 "우리는 결코 힘없이 주 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해안에

베토벤이 20대 중반 이후부터 자신의 귀가 점 점 어두워져가는 모습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감 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며 하일리겐 슈타트 지 방에 내려가 번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 깊은 고뇌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아직 펼치지 못한 음악세계를 더 표현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진 뒤 고백서(Heiligenstadt Testament)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베토벤의 제 2의 음악세계를 시작하며 이후 그의 음악의 진 수를 담은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초기 작품으로 1802년 그의 최초의 종교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 도"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약 50분 정도의 곡 이지만 전반부에 10분 이상을 베토벤 자신의 고 뇌에 찌든 시간들을 경험으로 감람산에서의 예 수님의 기도를 격한 감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고 한국적인 감정을 호소하며 한편의 드라마로 만

베토벤의 첫 번째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오병희 작곡가의 안테 "겟세마네의 기도" 통한 제자도...

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언덕에서도 싸울 것이 다. 우리는 나치를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외치며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리더십을 펼친 끝에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등 안테미 있습니다. 한국의 오병희 작곡가가 이 곡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드라마를 만들듯 겟세 마네 현장을 리얼하게 스케치하여 음악으로 표 현하였습니다. 먼저 전주 부분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과 신비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그려 내기 위해 화성의 증6도나 증4도를 사용하여 선 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합창의 서문 부분 으로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절하기까지 한 인간 적 예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을 그려냈습 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템포를 빠르게 펼쳐서 하나님께 강력히 호소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는 모습을 그려냈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 자신 에게는 죽음조차 아무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 한 제자도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며 종결하는 드라마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처칠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 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Oleksandrovych Zelenskyy, 1987-) 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개전 초기, 세계 여론은 "코미디언 출신 초짜 대통령이 나라를 위기로 몰 아넣었다"고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며 많은 우 려를 표하였습니다.

이 안테미 담긴 가사는 성경 마가복음 14:36 "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 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소서 하시고" 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 말씀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인간적 약함과 그 것으로 인한 갈등을 보이는 듯한 기도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 해야 할 권리가 없음을 바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 나님의 뜻대로 되어드리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6면으로 계속)

그가 요즘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스라엘, 나 토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연설에 큰 감동 을 전하며 각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 습니다. 하지만 필자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이 전쟁 개전 초기에 어느 기자가 "죽음이 두렵 지 않습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나도 다른 이들과 같 다. 자기 목숨이나 자녀의 목숨을 잃는 일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다. 하 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두려워할 권 리가 없다." 이 말이 필자에게는 겟세마네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연상 하게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겟세마네 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곡은 베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펴기

멕시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겨울철 비가 몇 번 왔다고 운전하다 보면 푸르른 들판에 크고 작은 노란 꽃들과 분홍색 꽃들이 어울려 무척 아름답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속히 푸틴의 야욕이 수포로 돌아가고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 상영

계속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화나와 주변에 많은 재활원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재활원들이 많지만 100명 이상 거주하는 큰 규모의 재활원들도 많습니다. Covid로 아직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방문이 허락되는 여러 재활원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좋은 기독교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지의 중미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수백 명이 거거하는 큰 교회도 방문하여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활원은 낮지만 산꼭대기에 있어서 포장도로에서 내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에 온통 흙먼지로 뒤집어져야 하는 불편한 곳입니다.

2월 하순에는 한 재활원에 영화 가는데 그 지역에 눈이 조금씩 내리더니 영화 상영하는 중간에 엄청 많은 눈이 내리서 제게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각 곳에서 영화 상영 시 Long Beach에서 받아간 과자들을 나누어주었고, LA에서 받아간 마스크들과 세정제를, 물티슈들은 영화 상영 시작 전이나 영화 상영 후에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영화 상영을 시작하면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 형제들의 모습이 늘 감동입니다. 이러한 영화가 형제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영화 상영

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사역들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Covid로 인하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 담요전달-매해 겨울철 미국에서 담요 값을 모금하여 여기 멕시코 여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담요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더 넣어주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멀리 시골 교회에도 일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캐리밴들-바로 위에 썼듯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지의 중미에서 올라온 캐리밴들이 머무는 한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LA에서 기증받은 여러 물품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 기도회 참석-2월 중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목사장로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겠지만 요즘 더욱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다녀왔습니다. 기도회에서도 기도하고,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는 길에 차 안에서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과 가정과 미국과 멕시코와 한국을 위해, 후원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화재 발생-최근 티화나 최고 빈촌 지역인 Alamar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여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여기는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이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밤중인 3시경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 교회건축-지난 covid 기간에 몇 교회건축(개축, 확장 또는 보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잘 건축되었고, 어떤 교회는 잘 진행이 안되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찬양(Alabanza)교회는 매우 허술한 교회에 바닥이 흠바닥이어서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후에 교회에서 벽들도 고친다고 손을 보았지만 엄청하네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좋은 성품의 목회자여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뉴저지말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이기에 전해야 할 복음” (26)



6. 장애인을 위한 완벽한 공동체가 가능한가?

예수의 산상수훈에 따라 살면 이 세상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오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오리를 가로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는 성경의 교훈을 문자 그대로 실생활에 적용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도둑과 강도, 전쟁과 약탈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사탄의 세력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악이 아니라 작은 악을 우리는 택할 경우가 있다. 전쟁은 분명 선이 아니다. 그러나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 전쟁은 필요하다. 전쟁이 없는 완전한 사회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 갈등이 없고 사랑과 평화

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추구를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선행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탄적 요소가 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사랑 그리고 타 종교에서 장애인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

제 6절 결론



뉴저지말알 추수감사절

장애인 선교의 신학적 토대는 복지와 영혼의 총체적 구원돼야 죽음과 부활의 복음 통과해야 하나님나라 복음에 참여 가능해

만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높은 이상에 비추어 항상 우리의 법들을 반성하고 좀 더 가까이 그 교훈의 이상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실제 생활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위한 완벽한 공동체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상을 따라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실망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전한 사회는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7. 타문화와 종교의 장애인 사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수는 교회나 기독교인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세상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가 아닌 타문화권에도 아름다운 선함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의 통치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보다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하나님 나라의 신적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곧 그것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집의 기초와 같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기초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손님이 안방에 잔치를 베풀 주인을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자.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집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문과 같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대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안방주인의 잔치와 같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안방에 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안방에 베풀어 놓은 잔치가

예수를 믿게 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신적 생명과 그 풍요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복음은 다음과 같은 복음을 포괄한다.

- 예수는 메시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의이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등등 수많은 복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의의 복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잊지 않는다면 왜곡되지 않은 포괄적인 복음선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바뀐 신학적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장애인 선교의 신학적 토대는 복지 없는 단순한 장애인 영혼 구원이나 영혼 구원이 없는 육신의 복지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총체적인 구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총체적 구원을 가능케 하는 소식인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miju92@gmail.com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갈보라성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etc.,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details.

인/터/뷰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총회장/한솔종합보험(주) 대표 황선철 장로

차세대 기독교 청년리더 키운다

차세대 청년리더 장학기금을 위한 '한솔골프대회'가 오는 4월 11일(월) 오전 11시 부에나파크 로스코요테스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한솔보험 대표이며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CBMC) 총회장인 황선철 장로가 한솔보험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갖게 됐으며서

"미주 CBMC에서 처음 실시하는 골프대회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의 활성화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차세대 청년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장학기금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고 황선철 장로는 입을 열었다.

황 장로는 지난 45년 동안 한솔종합보험(주) 대표로 일해 오고 있으며 이제 은퇴를 앞둔 상태다. 은퇴를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찾던 중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황 장로는 먼저 CBMC를 소개했다.

한국 CBMC의 시작

CBMC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1952년 미군장교 회원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세실힐(Cecil Hill) 대령에 의해 소개된 CBMC는 전 국회부의장이던 고 황성수 목사에게 전달됐으나 전쟁 중 바쁜 상황으로 인해 약 20년 뒤에 한국 중앙회가 생겼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거의 60년간 전 세계 550개 지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북미주 CBMC(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바로 미국의 경제를 기도로 시작하자고 외치며 '일터사역교회'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시작이고 일

터'라는 것이다.

그들이 한 주간 내내 일하며 만나는 고객도, 직원들도 모두가 복음의 대상자이기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업도 원리대로 하자고 시작한 것이 북미주 CBMC. 그러나 미국이 워낙 넓고 캐나다까지 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4년 전에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삶과 신앙

황선철 장로는 현재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올메디칼그룹과 세계한인교민청이 특별 후원하고 교계 많은 단체들이 협력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황선철 장로를 만나 삶과 신앙,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원래 카톨릭이었기에 그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라는 세례명도 갖고 있지만 용산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기독교학생단체에서 활동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후엔 1967년 대한적십자사의

한인들을 위해 헌신해온 기독교 실업인이다. 그는 금번 CBMC 키우기 위해 은퇴기념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그 첫 사역으로 골프대회를 준비했다. 이번에 4만 달러 정도 조성해서 2천 달러씩 20명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한다고.

황 장로는, "젊은 사업가들

미주CBMC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개최, 모금예상액 4만 달러 "젊은 한인사업가들 한인타운서 열심히 활동해 영향력 끼쳐야"

서영훈 총재와 함께 당시 연세대 총장을 찾아가 연세대 안에 적십자사 지부 창설을 요청해 연세대 적십자 모임인 YRC(Yonsei Red Cross)가 시작돼 현혈운동과 지역봉사 활동에서 앞장섰다.

황 장로가 미국에 온 것은 1976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 ROTC 장교, 한국 육사정치학 교수와 대한항공 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그가 미국으로 이민 왔다. 1977년 보험면허를 취득해 보험업계에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45년 동안 한솔보험을 운영해오며

이 한인 타운을 떠나지 말고 CBMC에 많이 들어와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 다. 한인사회에서 열심히 활동 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사실 그런 단체들은 빛을 못 보는 경향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 합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솔 골프대회



차세대 청년리더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한솔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황선철 장로 (우, 총회장)와 안신기목사(좌, 총괄준비위원장)

및 직장인 소상공인이며 미서부 지역 거주자로 거주,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아리조나, 밴쿠버, 하와이 등 거주자에 한한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서, 지난학기 성적 증명서, 학기 중 기독교 정신에 관련한 활동 내역서와 추천서이며 제출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제출 서류는 revshinki@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미주한인 CBMC 장학위원회(위원장 안신기목사)에서 선정하며 20명 내외로 장학금은 2천 달러다.

자세한 것은 (909)677-00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금번 골프대회에는 샷건 방식으로 18홀을 플레이하는데 게임 후 오후 5시에 디너타임이 있다. 골프를 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숫자까지 예상하면 180여명이 모일 것이라고 한다.

참가 회비는 140달러. 골프피(Fee)와 저녁 만찬은 한솔그룹이 전액 담당하며 회비와 각 단체 후원금은 약간의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주한인 CBMC 장학생 대상은 2022년 대학, 대학원 재학 및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교회음악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인간의 죽음을 아닌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통해 진정한 제자도를 배우게 됩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처절이라 지칭하는 젤렌스키. 그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자신을 내려놓은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율해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동하는 것이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iyoona@wmu.edu

말씀과 땅

(8면에서 계속)

라벨이 노아를 낳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창5:29) 한 예언적 내용이 틀에서 벗어난 강조이고, 노아의 자손을 하나가 아닌 세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강조이며(창5:32), 노아 때에 이르러 살펴보는 인류의 타락상과(창6:1-4)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창6: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창6:8) 등이 강조되는 내용들이다.

7. 족보의 비교적 의미를 살펴야 한다.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5장은 "하늘과 땅의 내력"의 끝인 창세기 4장과 비교된다. 후자는 가인의 혈통을 따라 그 족보를 이어갔고 전자는 셋의 혈통을 따라 그 계보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가인의 혈통에서 부른(qr) 이름(sēm)은 오직 하나, 에녹 성(city)이다(창4:17). 그들이 쌓은 성, 그들의 업적이 그들이 부른 유일한 이름이다. 반면 셋의 혈통에 대하여는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4:26)고 기록한다.

"하늘과 땅의 내력"에서 "아담의 계보"로 옮겨가는 부분에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

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신 본을 따라(창5:2) 그 후손의 이름을 불러준 기록이 두 번 등장한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이름을 노아라 하여"(창5:29). 이것이 두 족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셋의 이름을 부른 혈통은 문명을 남겼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혈통은 사람을 남겼다. 가인의 후손은 그 성을 남겼고(창4:23-24), 셋의 후손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임했다는 증언을 남겼다(창6:8).

8. 끝으로, 족보가 가리키는 방향을 성경신학적으로 살펴야 한다.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의 노선도라 할 수 있다. 마치 지하철 노선도가 역의 이름만 표기하듯 족보도 그러하다. 그 이름뿐인 노선도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현재 위치와 목적지다. 현재 어디에 있는가? 어디 방향 열차인가? 창세기 5-6장을 읽는 독자에게 있어서 현 위치는 "아담의 계보"다. 이 열차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을 지나 다음 역인 "노아의 족보"(창6:9-9:29)에 이르면 잠시 멈춰 승객을 잠시 열차 밖, 방주의 현장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는 여정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1:1-17)를 향해 달리고 잠시 멈추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 열차는 우리를 태우고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spark4@gordonconwell.edu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및 난민돕기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에 희망과 위로를 선물합시다!!

일시: 2022년 4월 1일 <금> 오후 7시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1645W.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후원을 원하시면 성시화로 보내 주세요
(Pay to: Holy City Movement)



- 주 관: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본부
- 공동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World Share USA, KACC, 청교도신앙회복운동, O.C.교협, O.C.목사회, O.C.장로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 참여기관: 한인회, NKIA탈북자선교회, 세계기도모임(서부지부)
- 후원언론기관: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비전, 크리스찬위클리, 기독교일보, 크리스찬헤럴드,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신문, [주간]사람과사회, CTSTV, CGNTV, CBSTV, CHTV
-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강태광 목사(323)578-7933, 김시온 목사(213)407-4569